

AHN CHANG HONG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귀국전

〈안창홍 - 유령패션〉



AHM CHANG HONG

목차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귀국 보고전
안창홍-유령패션

본 책자는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2021년 에콰도르 키토에 위치한 과야사민미술관, 인류의 예배당에서 개최된 〈안창홍 특별전〉(2021.11.4.~12.14.)과 이후 2022년 사비나미술관에서 귀국 보고전으로 개최된 〈안창홍-유령패션〉(2022.2.23.~5.29.)을 한권의 책자로 엮었습니다.

This catalog compiled two catalogs of 〈Ahn Chang Hong Special Exhibition〉(2021.11.4.~12.14.), which was held under the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Ecuador, opened in Casa Museo Guayasamín and La Capilla de Hombre located in Quito, Ecuador, and 〈Ahn Chang Hong-Ghost Fashion〉(2022.2.23.~5.29.), the homecoming exhibition opened in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8

인사말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FOREWORD
Lee MyungOk

Director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0

기획의 글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NOTE ON THE EXHIBITION

Curatorial Team at the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6

작품
〈유령패션〉
〈마스크〉
〈드로잉〉

WORKS
〈Ghost Fashion〉
〈Mask〉
〈Drawings〉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귀국 보고전

안창홍 – 유령패션

2022.2.23 ~ 2022.5.29

사비나미술관

(서울 은평구 진관1로 93)

인사말

안창홍 전을 열며

사비나미술관은 2022년 첫 번째 전시로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특별전 귀국전 안창홍: 유령패션〉전을 개최합니다.

본 전시는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 간 문화교류의 첫 장을 열었던 국가적 차원의 예술행사로 에콰도르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안창홍 특별 기획전〉의 귀국 보고전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대표적인 사립미술관인 사비나미술관이 에콰도르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과야사민미술관’과 협력해 개최한 첫 번째 협력 전시이자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의 작품이 ‘인류의 예배당’에서 전시된 이후 최초로 타국 작가의 작품이 소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사였습니다. 안창홍 작가는 이번 귀국 보고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과야사민미술관’에 전시된 〈유령패션〉유화 연작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디지털 펜화 등 에콰도르인들과 현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작품들을 비롯해 실험적인 입체 작업을 최초로 소개합니다.

디지털 펜화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전신 크기 유화로 옮기고, 입체로 확장시킨 작품들은 디지털 매체의 미학적·기술적 융합 및 전통미술과 뉴미디어 아트의 경계를 해체하고 탈경계의 사유를 실천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변주한 작품작들은 완성된 결과를 부수고, 새로이 조합하며 시각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가적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2022 3월
사비나미술관장 **이명옥**

FOREWORD

Inaugurating the Exhibition of Ahn Chang Hong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hosts 〈Ahn Chang Hong: Ghost Fashion〉as the first exhibition of 2022.

This exhibition is the homecoming exhibition of 〈Ahn Chang Hong Special Exhibition〉, the first art affair to open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Ecuador at national level, which also drew considerable attention from Ecuador.

In addition, the affair held significance in that it was the first exhibition opened by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one of the representative private art museum in Korea, with cooperation of ‘Casa Museo Guayasamín’, one of the greatest art museum in Ecuador. It was also the first time for a foreign artist to be promoted in the ‘La Capilla del Hombre’ since Francisco Goya(1746~1828), the Spanish Old Master in art history. Ahn Chang Hong has done new attempt for this homecoming exhibition.

We are pleased to present the artworks, which had received spotlights from Ecuador and its local press. This exhibition includes oil painting series of 〈Ghost Fashion〉, which were displayed in ‘Casa Museo Guayasamín’, and digital paintings made with utilization of digital techniques, as well as new works featuring experimental three-dimensional,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e attempt to develop the image from the digital paintings into oil painting works, almost big as full body of human, and also into three-dimensional seeks potential of the technical and aesthetic convergence of digital media and deconstructs the boundary between traditional art and new media art, serving as practice of trans-boundary.

The featured artworks boldly transcending various medias are considered as invaluable, in that they demolish the already-concluded results, creating the new, and explore the potential of expansion in visual arts with artistic challenge spirit.

2022 March
Lee MyungOk Director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기획의 글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귀국 보고전을 마련하며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귀국 보고전의 의미

본 전시는 지난 2021년 11월,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 간 문화교류의 첫 시도로 에콰도르 키토 ‘과야사민 미술관’과 ‘인류의 예배당’에서 개최된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의 귀국 보고전이다. 전시는 국가적 차원의 상호 문화교류 창출의 기회를 마련한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이 개최된 ‘과야사민미술관’과 ‘인류의 예배당’은 라틴아메리카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에콰도르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오스왈도 과야사민(1919~1999)의 대표 작품이 상설로 전시된 공간이다. 이처럼 전시는 한국이 에콰도르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과야사민미술관과 개최한 첫 번째 협력전시이자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의 작품이 인류의 예배당에서 전시된 이후 최초로 타국 작가의 작품이 소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예술행사였다. 전시는 에콰도르 현지 언론 등 해외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인간의 본성과 시대성을 포착한 주제의식

안창홍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소유 개념,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검은 욕망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유령패션〉과 〈마스크〉연작, 〈유령패션 디지털 드로잉〉 등, 총 1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시대를 자초한 인간의 욕망과 허상의 단면을 다룬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회화와 입체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강렬한 조형언어로 현대 한국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작품 속에 구현해온 안창홍 작가의 새로운 대표작을 소개한다.

〈유령패션〉연작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욕망의 허상을 다룬 작품이다. 그림 속 의상은 한껏 멋스럽게 포즈를 취했어도 주인공이 없어 공허하고 허망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자본주의의 부와 계급을 상징하는 화려한 옷을 걸친 자아, 즉 정신과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겨졌다. 작가는 고가의 브랜드로 한껏 멋을 낸 옷차림에 인간의 물질적 과시와 욕망에 대한 허상과 공허함을 담으며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를 되새긴다.

총 23점으로 구성된 〈마스크〉연작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개인성이 사라진 사람들을 형상화 한 작품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감춤과 동시에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담는다. 화려한 색으로 개성을 드러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봉대로 가려진 눈과 이마에 난 열쇠 구멍이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물질과 권력을 쫓는 인간의 심리를 드러낸다. 또한 마스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숨김과 동시에 오히려 과감하고 거짓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인의 모습을, 혹은

폭력과 억압으로 인한 개인 정체성의 상실이자 현대 사회의 집단 최면 현상과 군중심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디지털펜화에서 입체작품까지

사비나미술관 2~3층에 전시된 29점의 유화작품 〈유령패션〉의 원형은 스마트폰으로 수집한 사진 이미지 위에 디지털 펜으로 그림을 그려 완성된 디지털펜화이다. 작품제작 과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사진위에 디지털 펜으로 사람의 형상은 지우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넣어 옷만 남긴 형상으로 완성한다. 작가는 200여 점의 디지털펜화 중 29점을 선별해 이를 캔버스에 전신크기로 옮겨 유화로 그림을 그려 완성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안창홍 작가는 과야사민미술관 몬테베르데홀에 설치해 에콰도르 국민과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았던 〈유령패션〉유화 연작과 디지털펜화 등 에콰도르에서 선보인 작품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한국에 돌아온 후 유령패션 유화 연작 9점, 평면 회화를 입체로 확장한 입체작품 3점을 새롭게 완성해 출품한다. 100여 점의 디지털펜화는 전시장에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작품의 설치요소로 사용해 마치 허깨비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렇듯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의 미학적·기술적 융합 및 확장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작가는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작가적 태도를 보여준다. 본 전시는 안창홍 작가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다양한 양식을 변주하고 유화, 디지털펜화, 입체, 사진 등을 넘나들며 완성되어있던 결과를 부수고,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여 시각예술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작가적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NOTE ON THE EXHIBITION

Arranging the Homecoming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Ecuador

Curatorial Team
at the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ignificance of the Homecoming Exhibition

This exhibition is a homecoming exhibition of 〈Ahn Chang Hong Special Exhibition〉, which was held last 2021 November in ‘Casa Museo Guayasamín’ and ‘La Capilla del Hombre(“The Chapel of Man”)’, both located in Quito, Ecuador, in honor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Ecuador. The exhibition served as the first attempt for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t attracted noteworthy attention, while mediating to create opportunities for inter-cultural exchange in both countries at national level. ‘Casa Museo Guayasamín’ and ‘La Capilla del Hombre’, the places where 〈Ahn Chang Hong Special Exhibition〉 was showcased, contain permanent collection hall in which representative artworks by Oswaldo Guayasamín(1919~1999) are exhibited. Oswaldo Guayasamín is an Ecuadorian artist, and has been receiving high praise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Latin American Artist, while having been designated as Ecuador’s national heritage. While being a prominent art affair, the exhibition was the first exhibition in Korea to cooperate with Casa Museo Guayasamín, one of the greatest art museum in Ecuador, that

it being the first time for a foreign artist to be promoted in the La Capilla del Hombre since Francisco Goya(1746~1828), the Spanish Old Master in art history. The exhibition had been held in great success, highly acclaimed by Ecuadorian local press and overseas media.

Detecting the Nature of Human and the Contemporary

Ahn Chang Hong showcases works, which keenly criticize true nature of the very basic yet dark desire dominating people’s lives, and interrogate concepts of ownership and production in capitalist society, along with extreme anxiety and fear stemming from the pandemic era that struck the world in 2020. Through a wide-range of 150 artworks including the series of 〈Ghost Fashion〉 and 〈Mask〉, and 〈Ghost Fashion Digital Painting〉, the artist deals with the desire of human and the aspect of delusion which had resulted in the pandemic era. This exhibition features new representative works by Ahn Chang Hong, who has been materializing sharp criticism of modern Korean society in his works, covering paintings and three-dimensionals, with various and intense formative language.

As previously stated, the 〈Ghost Fashion〉

series reflect on the delusion of human desire. The costume in the painting strikes its fancy pose, but the owner is not present, thereby refers the sense of hollowness and vanity. That is, ego wearing luxurious outfits, simultaneously acquiring an easy way to display one’s self and represent wealth and hierarchy of capitalist society. In other words, spirit and human nature are gone and the only remaining is the superficial. Therefore the artist engraves the notion of human being, by embodying delusion and hollowness of the materialistic ostentation and human desire through these fancy costumes perked out with luxury.

The 〈Mask〉 series consisted with 23 reliefs are artworks representing people whose individuality is eliminated by capital and authority. The mask implicates conceal and vestiture of one individual’s identity. It seems to reveal individuality through flamboyant colors, but in fact the eyes covered with bandage and the key hole on the forehead expose the human psyche chasing after materialism and power. It also represents modern people wearing a mask, while simultaneously concealing itself and showing the bold and fabricated another self, or either loss of individual identity by violence and oppression, along with phenomenon of mass hypnotism and crowd mind in modern society.

From Digital Pen-paintings to Three-Dimensional Works

The 29 oil paintings entitled 〈Ghost Fashion〉, which are on display on the 2nd and the 3rd floor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were originally derived from digital pen-paintings done by digital pen. The images of these paintings were collected via smartphone, and were progressed by the

artist wiping out the human form, and then substituting with additional drawing on it, while leaving the remains of the costumes. The artist selected 29 out of 200 artworks from the digital pen-paintings and then developed them into oil painting, almost big as full body of human.

Not only oil paintings from the “Ghost Fashion” series and 80 digital paintings done with utilization of digital techniques, which had been also presented in the Monteverde Hall of Casa Museo Guayasamín, alluring interests from Ecuador and press media, new works are also on display in this exhibition. After the artist had returned to Korea last December, he finished 9 new oil painting works from the “Ghost Fashion” series, along with 3 three-dimensional works developed from the previous two-dimensional works, both specially made for this homecoming exhibition. The digital pen-paintings of an approximate of 100 maximize the ghostly effect, as it being an on-again-off-again illusion, with the usage of transparent OLED display as a form of installation element. As well as painting and sculpture, through digital works which explore the technical and aesthetic convergence and expansion, the artist stamps his artistic manner to flexibly embrace the change of era and to consistently experiment.

The artist has been making creative and various styles, and traversing wide-range of genres including oil painting, digital pen-painting, three-dimensionals, and photography, while demolishing the already-concluded results. This exhibition is considered as an invaluable result, in that trying an attempt for new art, and expanding the potential of visual arts, with artistic challenge spirit.

**〈Ahn Chang Hong – Ghost Fashion〉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WORKS

작품



유령패션 2022'1
Ghost Fashion 2022'1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113cm
2022



“아주 늦거나 아주 이른 시간 길을 메우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인파로 채워지지 않은 도시의
거리는 공허하다. 마치 유명들의 거리처럼 사람들의 존재는 사라지고 화려하게 치장된 거적때기들만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듯한 착시현상에 빠져든다.

그렇다! 유명들의 거리, 유명들의 패션쇼... 적막감만 강물처럼 흐르는 텅 빈 도시.

이것이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멸망의 벼랑 끝으로 내달려가는 문명의 폭주 열차를
멈춰 세울 방도는 없는 것일까?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도시를 그릴 계획이었고, 유명패션 연작이 유명 그리기의 첫 시작이다.

허깨비이거나 유명이거나.”

- 안창홍 작가노트

“The empty street of city which used to be crowded in a late or in an early hour, is vain.

I hallucinate the illusion which the existence of people is vanished and only those
filling the street are fancy piece of shells, just like the street of ghosts,

Yes! Street of ghosts, fashion show of ghosts... Hollow city only loneliness flowing like
a river. What could it be called other than the city of ghosts? Are there no other ways
to stop the runaway train of civilization rushing toward the edge of destruction?

I was planning to draw the city of ghosts, and the 〈Ghost Fashion〉 series were the
first of ghost drawing. Either an illusion, or a ghost.”

- Ahn Chang Hong, Artist's Notes

유명패션 2022'2
Ghost Fashion 2022'2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112cm
2022



유령패션 2022'3
Ghost Fashion 2022'3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 X 112.5cm
2022



유령패션 2022'4
Ghost Fashion 2022'4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2×113.5cm
2022



유령패션 2022'5
Ghost Fashion 2022'5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131cm
2022



유령패션 2022'6
Ghost Fashion 2022'6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113cm
2022



유령패션 2022'7
Ghost Fashion 2022'7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113cm
 2022



유령패션 2022'8
Ghost Fashion 2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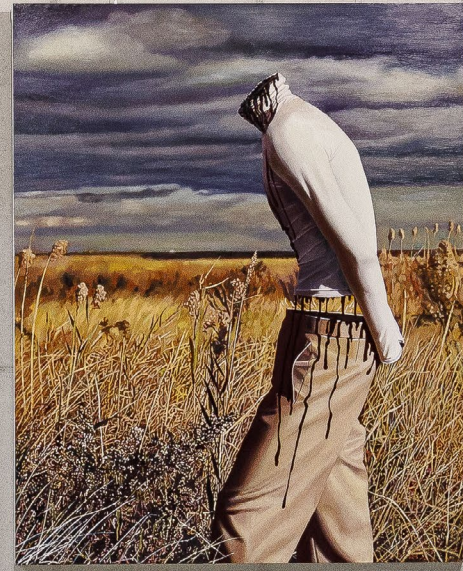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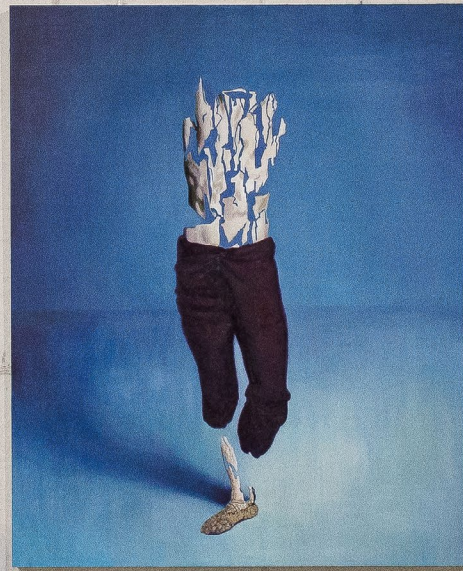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113.5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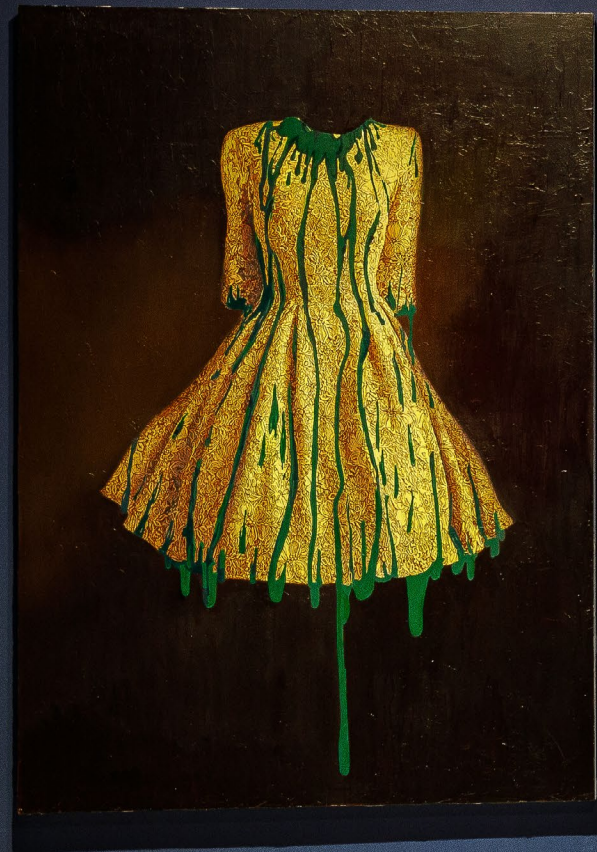


유령패션 2022'21
 Ghost Fashion 2022'21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112cm
 2022





[illegible]



유령패션
Ghost Fashion

디지털펜화 150점
150 of digital pen-painting
LG 투명 OLED 디스플레이에 영상설치
video installation on LG transparent OLED display
각 260.8×148×55cm (3개)
260.8×148×55cm ea (3 panels)
2020~2022







유령패션 2022-2
Ghost Fashion 2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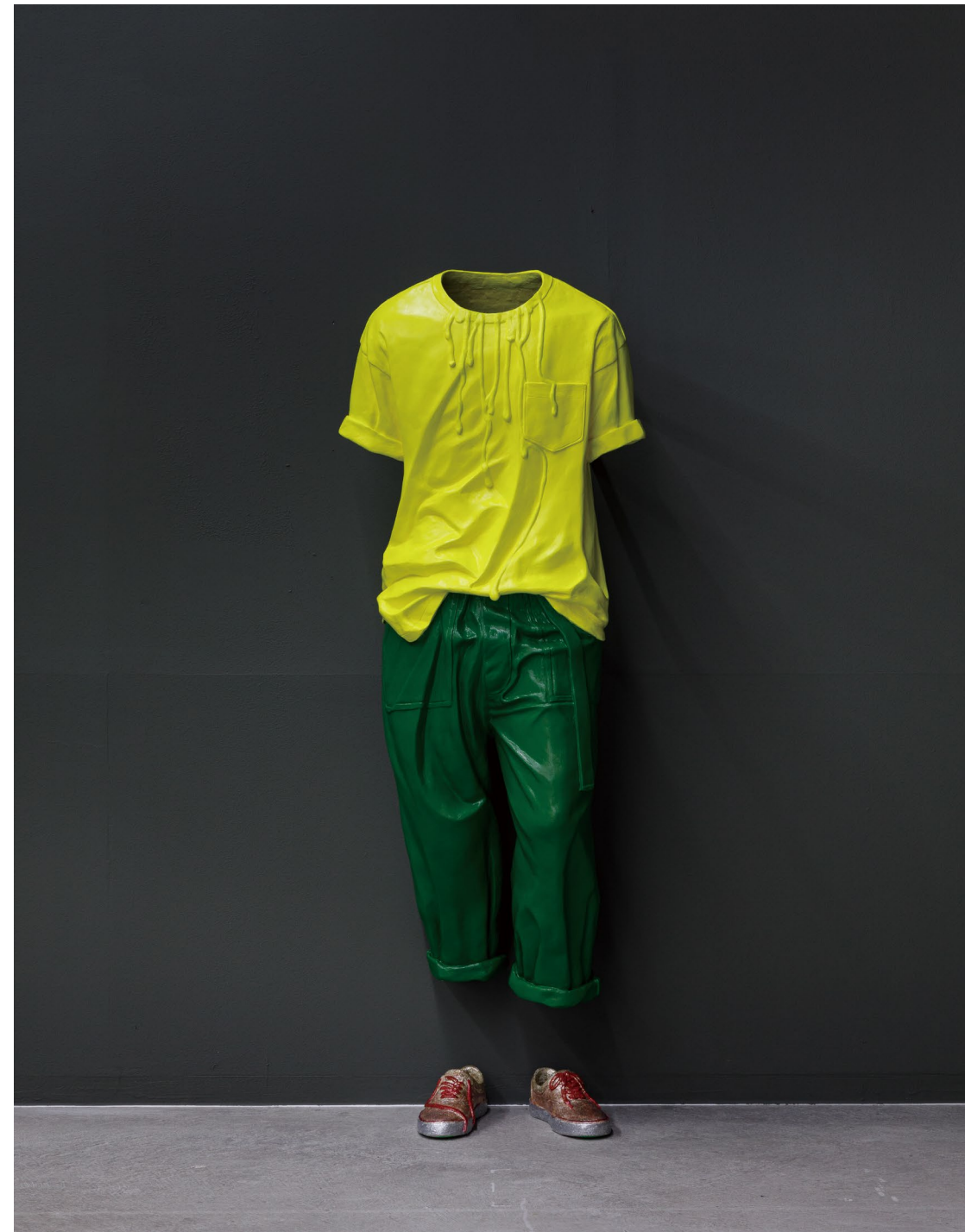
FRP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FRP
163×79×48cm
2022





유령패션 2022-1
Ghost Fashion 2022-1

FRP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FRP
163×143×65cm
2022



유령패션 2022-3
Ghost Fashion 2022-3

FRP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FRP
155×67×37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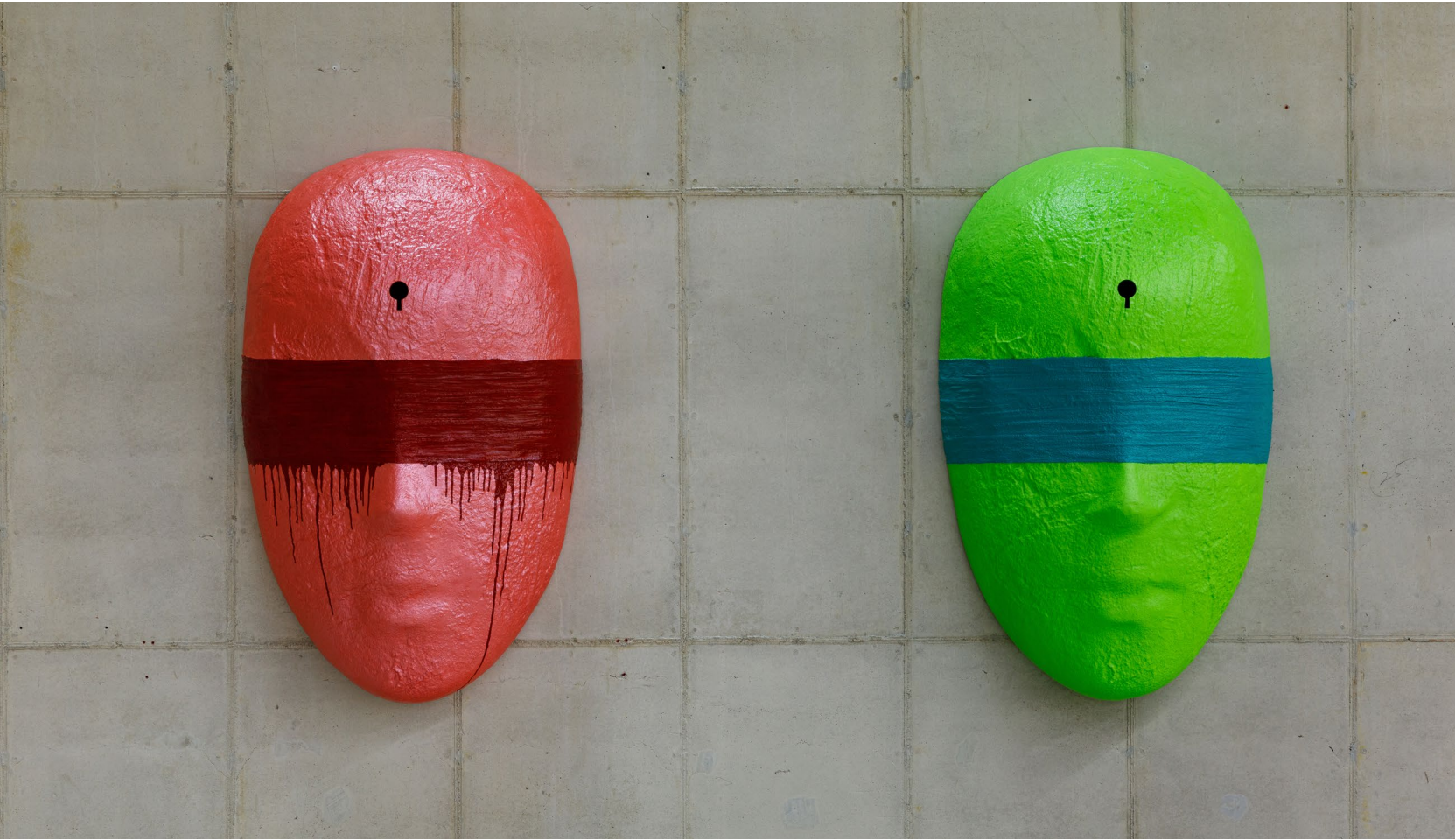






“마스크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우민화된 대중들,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표리부동한 목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질주하는 집단들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눈을 가린 봉대와 이마에 뚫린 열쇠구멍은 상실된 자아와 무의식을 상징한다.
제각각 화려한 색들로 치장했으되 막상 들여다보면 허깨비처럼 부유하는 부평초 같은 삶들.
나는 마스크를 통해 욕망의 주체이자 희생자들이기도 한 우리들에 대해, 자본과 권력의 정교한 음모와
사적인 탐욕에 못 이겨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타의에 의해 망가지거나 하는 이중적 사회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 안창홍 작가노트, 2019, ‘〈이름도 없는 전〉에 부쳐’

“The Mask is about the insane world.
It is about the dumbed down people, collectivism and violence, the unconscious of
the collective rushing in shipshape for two-faced purpose, as if they are hypnotized.
The bandage covering the eyes and the keyhole on the forehead represent lost identity
and unconsciousness.
Each of them adorned with vivid colors, but if you take a careful look, they are in fact
life floating like a ghost.
Through the mask, I wanted to talk about us as subject and victim of desire and
the two-faced social phenomenon, in which one is losing itself or being lost by other,
giving in to greed caused by elaborate conspiracy of capital and power and
personal desire.”
- Ahn Chang Hong, Artist’s Notes, 2019, ‘To 〈Sad Eva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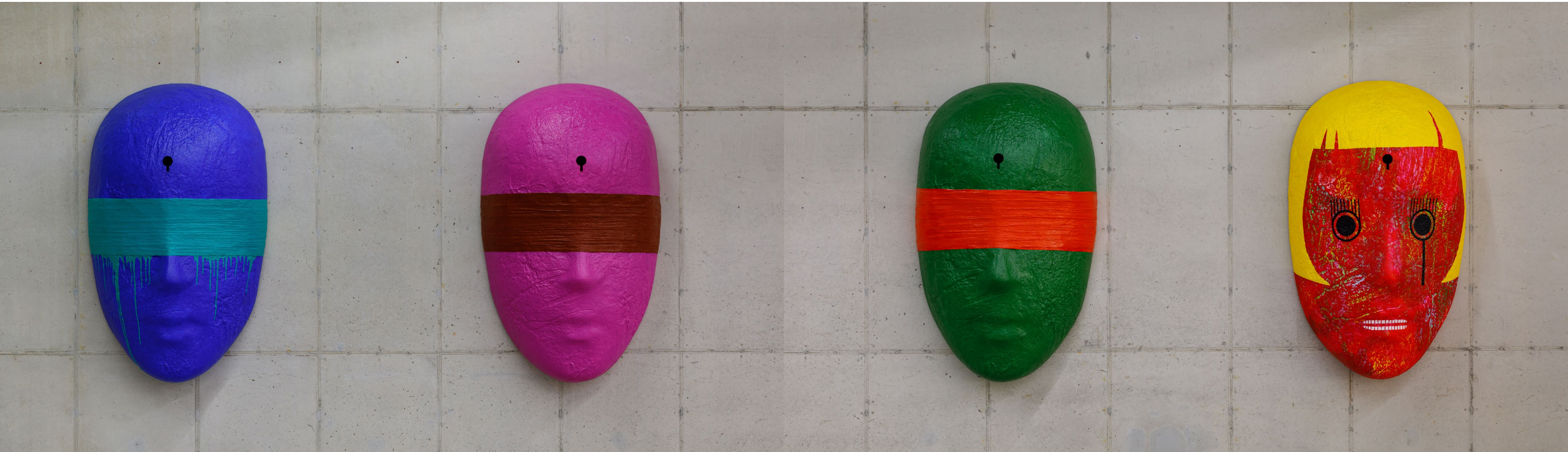


마스크 2019-16
Mask 2019-16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14
Mask 2019-14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18
Mask 2019-18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2
Mask 2019-2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8
Mask 2019-8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23
Mask 2019-23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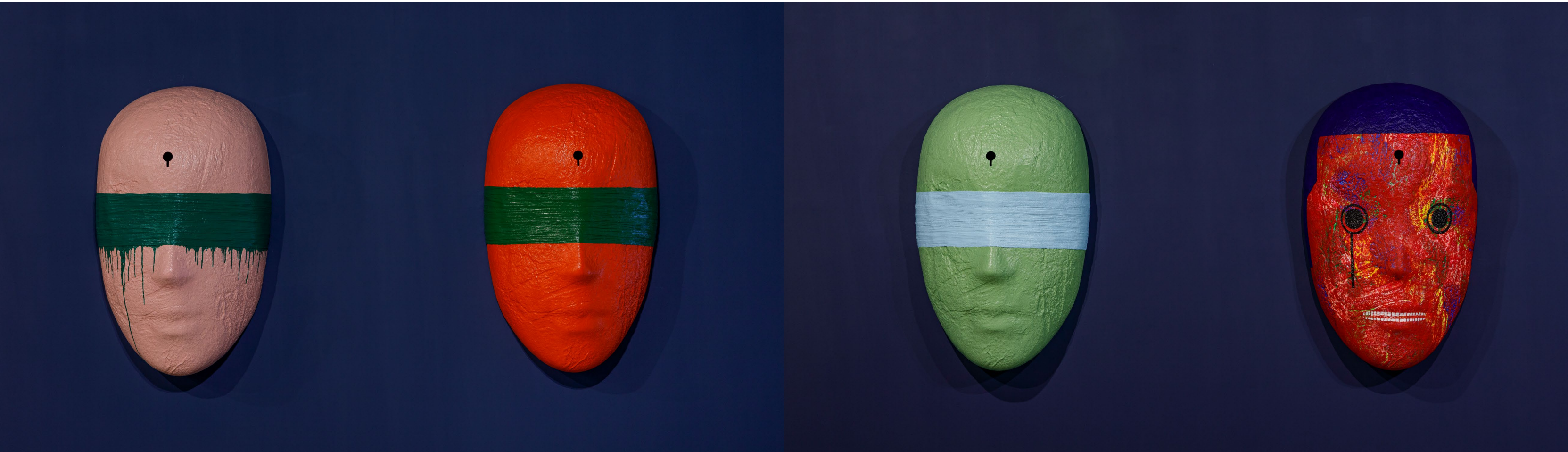


마스크 2019-20
Mask 2019-20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7
Mask 2019-7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4
Mask 2019-4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1
Mask 20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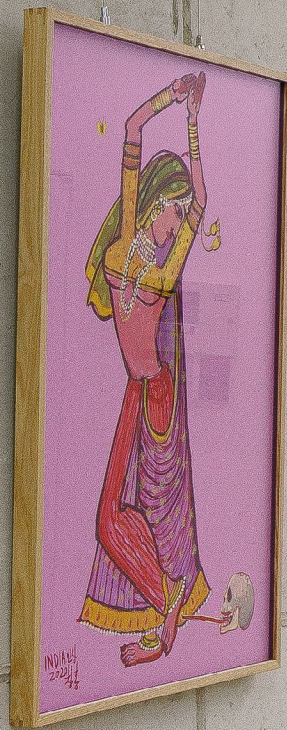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10
Mask 2019-10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마스크 2019-22
Mask 20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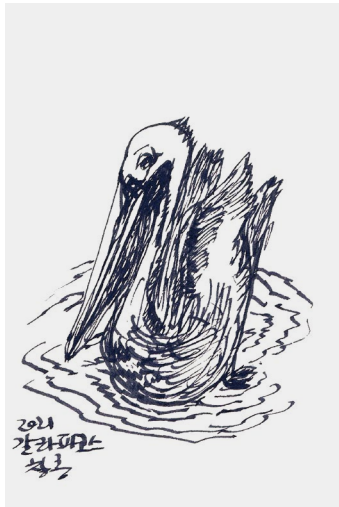
혼합매체
Mixed Media on FRP
146×86×44cm
2019



〈안창홍-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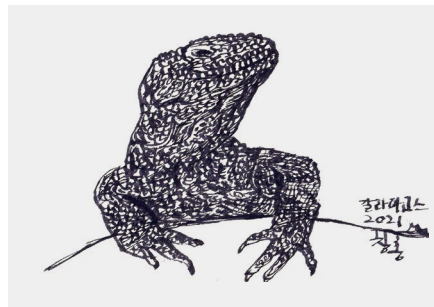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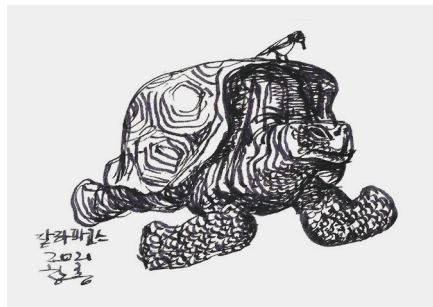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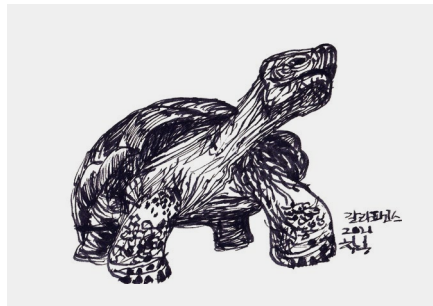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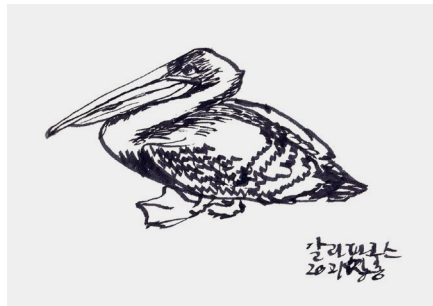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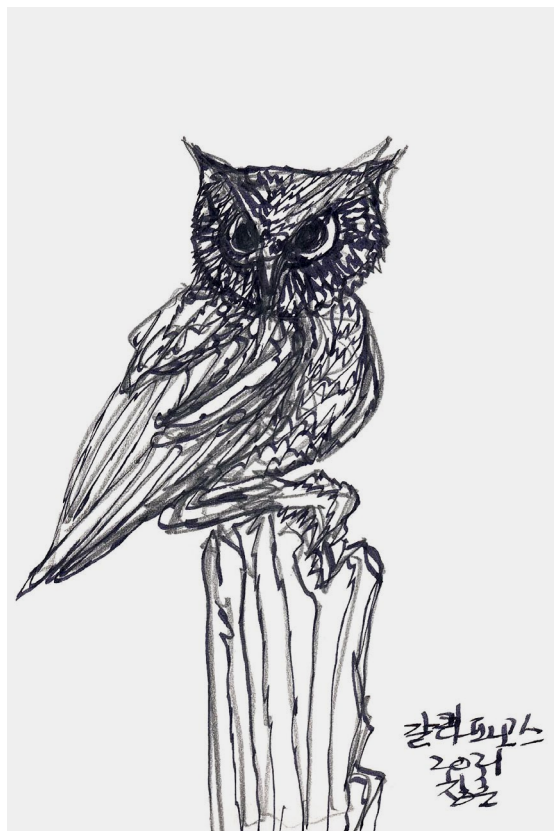
**갈라파고스
Galapagos**

종이에 펜
Pen on paper
14.6×10.3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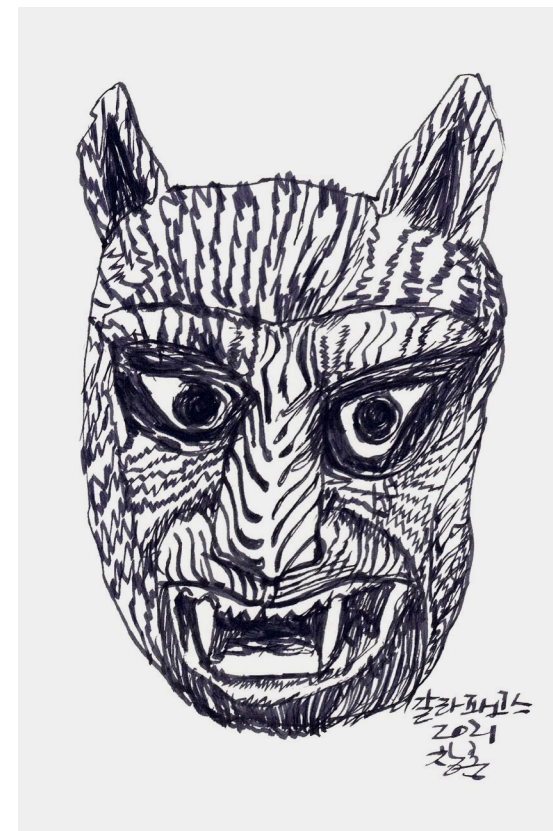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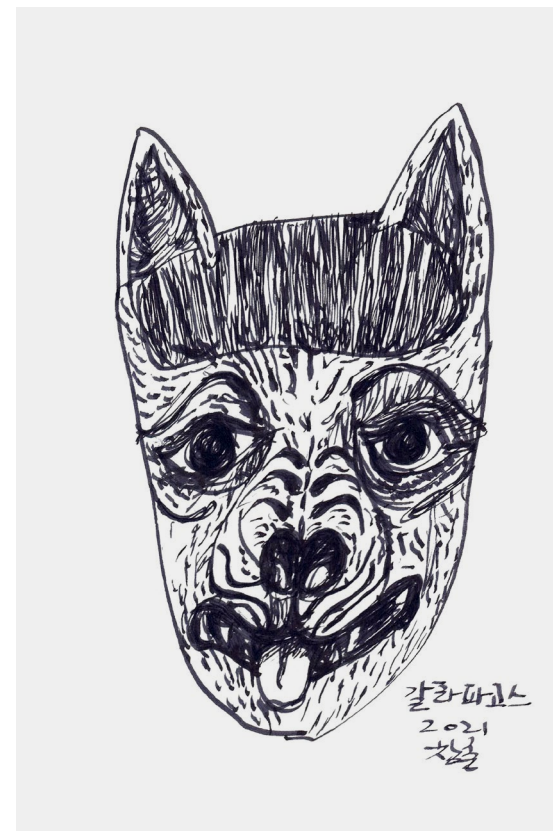
**갈라파고스
Galapagos**

종이에 펜
Pen on paper
10.3×14.6cm
2021



갈라파고스
Galapagos

종이에 펜
Pen on Paper
20.7×14.8cm
2021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귀국 보고전
〈안창홍-유령패션〉
2022.2.23.~5.29.

관장 이명옥
학예실장 강재현
학예사 김승현, 한상익
학예연구실 박지민, 김유영, 박상하,
신명은, 조한울
테크니션 박노춘, 최민석
사진촬영 포토룩 조영하
번역 김유영
발행처 사비나미술관
발행인 이명옥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찬 LG디스플레이

이 책은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의 일부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2022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The Artist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사비나미술관과 작가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비나미술관
03310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93
T. 02 736 4371 F. 02 736 4372
www.savinamuseum.com

Homecoming Exhibition in Honor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Ecuador
〈Ahn Chang Hong-Ghost Fashion〉
2022.2.23.~5.29.

Director Lee MyungOk
Chief Curator Kang JaeHyun
Assistant Curator Kim SeungHyun, Han SangIk
Curatorial Team Kwak JeeMin, Kim YouYoung, Park SangHa,
Shin MyeongEun, Cho HanUi
Technician Park RohChoon, Choi MinSuk
Photography PHOTOLOOK Jo YoungHa
Translation Kim YouYoung
Published by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Publisher Lee MyungOk

Supported by ARKO(Arts Council Korea)
Sponsored by LG Display

This book is published with the partial support of “2022 Selection
Visual Art, ARKO(Arts Council Korea)”.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s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the Artist.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93, Jingwan 1-ro, Eunpyeong-gu, Seoul 03310, Republic of Korea
T.+82 2 736 4371 F.+82 2 736 4372
www.savinamuseum.com

AHN CHANG HONG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

2021.11.4 ~ 2021.12.14

과야사민미술관 몬테베르데 홀, 인류의 예배당

CONTENIDO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기념 과야사민미술관
〈안창홍 특별초대전〉

78	MENSAJE DE FELICITACIÓN S.E. Ko BongWoo El Embajador de la República de Corea	축사 고봉우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
80	S.E. Johnny Reinoso-Vasquez Jefe de Misión Diplomática del Ecuador en Corea	조니 레이노소 바스케스 주한에콰도르 대사 대리
84	PALABRAS DE BIENVENIDA Lee MyungOk Directora del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Savina	인사말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88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Presidente del Directorio	파블로 과야사민 과야사민재단 이사회 회장
90	Rodrigo Villacís Molina Crítico de arte, colaborador de Fundación Guayasamín	로드리고 비야시스 몰리나 미술비평가, 과야사민재단 협력 평론가
93	PRÓLOGO Kho ChungHwan Crítico de arte	서문 고충환 미술비평가
114	OBRAS 〈La Moda de los Fantasmas〉	작품 〈유령패션〉
158	〈Ceguera〉	〈눈 먼 자들〉
174	〈Rostros〉	〈얼굴들〉
190	〈Dibujos Digitales〉	〈디지털펜화〉
218	BIOGRAFÍA DE LA ARTISTA	작가 약력

MENSAJE DE FELICITACIÓN

S.E. Ko BongWoo

El Embajador de la República de Corea

Al hablar de la cultura del Ecuador, no podemos dejar de mencionar a Oswaldo Guayasamín(1919-1999), un pintor y escultor mundialmente renombrado. Es un verdadero maestro, que no ignoró la vida dolorosa y desigual de los latinoamericanos y expresó en sus obras la furia y los gritos de los ciudadanos oprimidos.

La exposición especial de Guayasamín en Corea se celebró del 19 de diciembre de 2020 al 2 de febrero de 2021, y fue organizada por el motivo de la visita del ex Primer Ministro Lee NakYeon en mayo de 2019, considerado como la más destacada figura coreana en visitar el Ecuador tras el establecimiento de relaciones diplomáticas en 1962 entre ambos países. Esta exposición se celebró con gran éxito recibiendo la cálida recepción de los ciudadanos coreanos, por lo que las entradas se agotaron día tras día. Hasta el momento no ha habido mucha oportunidad de conocer de cerca el arte latinoamericano en el país y esta exhibición supuso una buena ocasión para conocer los problemas históricos y sociales de Latinoamérica a través de sus obras.

El Museo Savina, que organizó exitosamente la exposición especial de Guayasamín en Corea, va a celebrar en noviembre del presente año en la Casa Museo Guayasamín una exhibición especial de Ahn ChangHong, uno de los pintores representativos contemporáneos de Corea, con el apoyo del Ministerio de Cultura, Turismo y Deporte, a fin de ampliar el horizonte de intercambio cultural entre ambos países.

En marzo tuve la oportunidad de visitar, acompañada por la directora de la Fundación Guayasamín, Doña Berenice, hija del pintor, el Museo Guayasamín, la Capilla del Hombre, la Casa Guayasamín y su estudio, con objeto de realizar la consulta sobre la exhibición especial de Ahn. Todo los lugares que visité se diseñaron para exhibir las pinturas y la historia que el pintor quería narrar y transmitir a la sociedad.

El Museo Guayasamín decidió celebrar la exposición especial sobre Ahn, primera exhibición de un pintor coreano y segunda de un extranjero desde su fundación, tras la celebración de la exhibición del pintor español Goya. Esta exposición busca revitalizar el intercambio cultural con Corea y contribuir al desarrollo de las relaciones bilaterales que cumplen 60 años.

Agradezco profundamente a todos que han apoyado la preparación de la exposición, sobre todo, al Museo Savina, por su dedicación y esfuerzo, y espero que tenga éxito la exhibición de vuelta a casa de Ahn ChangHong que tendrá lugar en el Museo Savina en 2022.

축사

고봉우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

에콰도르 문화를 이야기할 때 중남미를 넘어 세계적인 화가이자 조각가인 오스왈도 과야사민(Oswaldo Guayasamín, 1919-1999)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지 않고 억압받는 주민들의 분노와 외침을 승화시킨 진정한 마에스트로입니다.

한-에콰도르 수교(1962년) 이후 최고위급 정부 인사로 2019년 5월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의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과야사민 화백의 한국 특별전시회(2020.12.19.~2021.2.2. 사비나미술관)가 뜨거운 관심 속에 연일 매진되는 등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남미 예술을 접할 기회가 드물었던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그의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야사민 한국 특별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비나미술관은 양국 문화 교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동시대 한국의 대표 작가인 안창홍 화백의 특별전을 과야사민미술관에서 금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 화백의 특별전 개최 협의를 위해 지난 3월 과야사민의 따님인 ‘베레니세’ 과야사민 재단 이사의 안내로 과야사민미술관과 ‘인류의 예배당’(La Capilla del Hombre), 과야사민의 거주 공간, 그리고 작업실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곳은 그가 남기고 싶은 그림과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과야사민미술관 측은 설립 이후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 전시회’를 개최한 이후 최초로 한국과의 문화 교류 활성화와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안 화백의 특별전시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사비나미술관측의 헌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2022년 사비나미술관에서 개최될 안창홍 화백의 귀국전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MENSAJE DE FELICITACIÓN

S.E. Johnny Reinoso-Vasquez

Jefe de Misión Diplomática del Ecuador en Corea

En nombre de la Embajada del Ecuador en Corea -y del mío propio- quiero extender mi más profundo testimonio de regocijo y alegría, por la magnífica relación bilateral que existe entre la República del Ecuador y la República de Corea; la cual, se vio afianzada -no sólo con la entrañable cooperación en tiempos difíciles- sino también, en la ejecución de importantísimas exhibiciones artísticas, que han permitido llevar una parte de la historia, el arte y la cultura de ambas naciones hacia sus respectivas capitales. Ello ha permitido conocer desde la expresión misma de la sensibilidad humana, los aspectos más íntimos de sus sociedades.

Entre esos importantes eventos, se destaca la primera exhibición de las obras originales del Maestro Oswaldo Guayasamín en Seúl, llevada a cabo de diciembre de 2020 a enero de 2021, en el Museo Savina; ocasión donde, pese a las dificultades de la pandemia, hicimos posible traer un total de 89 obras de los tres periodos del pintor nacional de Ecuador, constituyéndose en uno de los íconos más importantes de la relación bilateral, en su historia.

Sin embargo, nuestra fraternidad quiso que no sólo una parte del arte de Ecuador viaje a Corea, sino que, una parte de Corea también viaje a Ecuador; por ello, saludo con profundo agrado, la ejecución de la exhibición de las obras originales del famoso pintor coreano Ahn ChangHong, quien exhibirá una parte de la esencia del pueblo coreano en la capital Quito.

El pintor Ahn ChangHong ha sido famoso por realizar obras de colores fuertes y algunas otras de color negro y blanco. Sus obras son

reinterpretaciones de fotos antiguas, donde los ojos de los personajes están cerrados o cubiertos, para representar personas anónimas y calladas. Por ello, los espectadores verán en dichas obras que su historia quizá sea la historia de todos. Esta misma exhibición, será también ejecutada en Seúl, en el Museo Savina, apenas concluya en territorio ecuatoriano.

Invocando nuevamente las excelentes relaciones diplomáticas entre Ecuador y Corea -en mi caso personal- agradezco a todos quienes hicieron posible esta exhibición, a la par que invito a todos quienes la visiten, a seguir luchando y sirviendo a nuestras naciones... a nuestros hogares.

Invoquemos las maravillas de la ciencia en lugar de sus terrores. Exploremos el espacio y las estrellas, conquistaremos los desiertos, erradiquemos las enfermedades, aprovechemos las profundidades del océano y fomentemos las artes y el comercio.

En la larga historia del mundo, sólo a unas pocas generaciones se les ha otorgado el papel de defender a su nación en su hora de máxima trascendencia. No debemos eludir esta responsabilidad, debemos darle la bienvenida. No creo que ninguno de nosotros intercambie lugar con otras personas o con otras generaciones. La energía, la fe, la devoción que aportemos a este esfuerzo iluminará a nuestros países, y el resplandor de ese fuego podrá iluminar verdaderamente al mundo.

Con una buena conciencia como nuestra única recompensa segura, lideremos esta tierra que amamos. Dios bendiga al Ecuador, Dios bendiga a Corea y que nos guíe la justicia y el Derecho.

축사

조니 레이노소 바스케스
주한에콰도르 대사 대리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을 대신하여 그리고 한 사람의 에콰도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가 견지해온 오랜 역사적 우호관계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양국관계는 고난의 시기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증명되고 공고해졌으며, 상대국의 대표적인 역사, 예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예술 전시회 개최를 다름 아닌 양국의 수도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국가의 인간적 감수성과 가장 은밀한 내면으로 다가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전시회가 서울 사비나미술관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결출한 에콰도르 민족작가의 세 시대에 걸친 작품 89점을 한국으로 수송하여 양국관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화 교류의 아이콘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국을 잇는 형제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한국에 온 에콰도르 예술계에 대한 답방의 차원에서 금번 한국의 유명화가인 안창홍 화백의 전시회를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전시하여 한민족의 정수를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창홍 화백은 강렬한 색채와 흑백 작업으로 인지도 높은 작가입니다. 오래된 흑백사진을 재해석한 그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눈을 감거나 가림으로써 익명의 초상과 침묵하는 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객은 그의 작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번 전시회는 에콰도르에서 종료되는 즉시 서울 사비나미술관에서도 전시됩니다.

에콰도르와 한국이 오랜 세월 견지해온 양국의 우호협력의 외교 관계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전시를 가능하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이 전시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양국의 발전과 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맹목적인 공포가 아닌 과학적인 경이로움을 기억하고, 우주와 별을 탐험하며, 사막을 정복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태양이 품은 미지의 자원을 활용하며, 예술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세계 역사상 가장 중차대한 시기에 조국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 세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반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그 어떤 다른 사람이나 세대의 상황과 바꾸고 싶어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노력에 더하는 에너지와 믿음과 헌신은 나라를 밝히고, 그 빛은 진실로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을 인도합시다. 신의 축복이 에콰도르와 한국에 깃들기를, 그리고 정의와 법에 의해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PALABRAS DE BIENVENIDA

Lee MyungOk

Directora del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Savina

El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Savina inaugura la «Exhibición especial de Ahn ChangHong en la Casa Museo Guayasamín en el marco de la conmemoración del 60 aniversario del establecimiento de Relaciones Diplomáticas entre Ecuador y Corea» gracias a la colaboración de la Casa-Museo Guayasamín, considerado uno de los museos más destacados de Ecuador.

La exhibición que se presenta es una propuesta artística diseñada entre ambos países, organizada por el Ministerio de Cultura, Deportes y Turismo de Corea y patrocinada por el Ministerio de Asuntos Exteriores de Corea, en colaboración con la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Ecuador, 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y Movilidad Humana de Ecuador y la Embajada de Ecuador en la República de Corea. Este evento nace de la voluntad de corresponder a la «Exhibición especial de Oswaldo Guayasamín», presentada con éxito el año pasado por el Museo Savina, cuando por vez primera las obras del pintor nacional de Ecuador fueron mostradas en Corea.

En particular, esta exhibición posee un gran significado al ser la primera que surge de la colaboración entre ambos museos, que representan a sus respectivos países. Las obras del artista Ahn ChangHong se exhibirán en la Casa-Museo Guayasamín y en la Capilla del Hombre, donde se exponen de forma permanente los títulos más representativos de Oswaldo Guayasamín –declaradas Patrimonio Nacional del Ecuador–, reconocido como «uno de los grandes artistas de Latinoamérica», siendo la primera que vez que las obras de un artista coreano se presentan ante el pueblo ecuatoriano. Asimismo, la propuesta cobra mayor significado porque desde los lienzos del gran pintor español Francisco de Goya(1746~1828), la Capilla del Hombre no había vuelto a acoger la obra de un artista extranjero.

En este evento Ahn ChangHong expondrá 60 obras (20 óleos, 17 figuras

tridimensionales y 23 estructuras de cemento en relieve), a través de las cuales el artista indaga con perspicacia en la inseguridad y el miedo que las personas viven en tiempos de pandemia, que impactó al mundo entero el año pasado, en el concepto de producción y posesión en la sociedad capitalista, y en la esencia básica del oscuro deseo que domina las vidas de los seres humanos. Por otra parte, mostrará creaciones con un fuerte carácter experimental mediante el uso de nuevas tecnologías, representadas en 80 obras creadas con bolígrafos digitales para teléfonos inteligentes. Así, Ahn ChangHong explora la convergencia entre el arte y la tecnología, además de la escalabilidad de los medios digitales.

Este artista coreano es conocido por ser un distante observador que astutamente divisa la naturaleza de ese monstruo llamado «poder» en sus diversas formas: poder político, poder capitalista, poder social, poder cultural, poder del conocimiento, etc., y porque en vez de reconciliarse con un mundo dominado por el poder, se enfrenta a él con una crítica rigurosa. Sin duda Ahn ChangHong, quien se caracteriza por ahondar en la codicia y la ambición que se esconden en el ser humano y por soñar con una sociedad totalmente nueva donde no existe el poder, y Oswaldo Guayasamín, quien siempre estuvo del lado de los más débiles, que son las mayores víctimas de la violencia humana, y denunció esa falta de humanidad, tienen rasgos en común.

Espero que esta exposición sirva para que los visitantes puedan contemplar y comparar las obras de estos dos grandes maestros del arte, que reflejan el espíritu de los tiempos de ambos países, y a su vez ayude a comprender que el imparable deseo por la carrera hacia el poder solo se puede frenar con compasión, empatía y altruismo para con los otros. Además, me gustaría expresar mi agradecimiento a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y al Sr. Abogado Kim HyunTae por su apoyo para celebrar esta exhibición con éxito.

인사말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사비나미술관은 에콰도르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과야사민미술관과 협력하여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안창홍 특별초대전〉을 개최합니다.

본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외교부 후원,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에콰도르 외교부, 그리고 주한에콰도르 대사관이 협력하는 양국 간의 예술행사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사비나미술관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했던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 특별기획전〉의 답방 형식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안창홍 특별초대전은 한국·에콰도르를 대표하는 두 미술관의 첫 번째 협력전시로 그 의미가 큼니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에콰도르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대표작품이 상설 전시된 과야사민미술관과 인류의 예배당에서 한국작가의 작품이 처음으로 에콰도르 국민과 만나는 뜻깊은 예술행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의 작품이 인류의 예배당에서 전시된 이후 최초로 타국 작가의 작품이 소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창홍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소유 개념,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검은 욕망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60점의 작품(유화 20, 입체 17, 시멘트 부조 23)을 선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디지털 펜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80점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실험성이 강한 작품들을 함께 소개하며 디지털 매체의 미학적·기술적 융합 및 확장성을 탐색합니다.

안창홍은 평생 정치권력, 자본권력, 사회권력, 문화권력, 지식권력 등 ‘권력’이란 괴물의 속성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던 냉정한 관찰자이자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항한 투철한 비판자였습니다. 인간 내면의 탐욕과 야만성을 파헤치며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안창홍과 인간에 내재한 폭력성의 희생양인 약자의 편에 서서 인간성의 결함을 고발한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예술관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한국·에콰도르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두 거장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기회를 가지며 권력을 향한 욕망의 질주를 막는 길은 타인을 향한 연민과 공감, 이타심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와 김현태 변호사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PALABRAS DE BIENVENIDA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Presidente del Directorio

La Fundación Guayasamín desde el año 1975 hasta el año 2010 era la principal sala privada de exposiciones temporales en la ciudad de Quito, artista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reconocidos por la crítica especializada tuvieron el honor de presentar sus creaciones plásticas en nuestros espacios culturales.

Estas exposiciones se suspendieron cuando la Fundación Guayasamín cambia su domicilio y se crean nuevos espacios expositivos donde se da cabida especialmente a la obra del maestro Guayasamín.

Como es de conocimiento del mundo plástico más de 100 exposiciones temporales con la obra de Oswaldo Guayasamín han visitado distintas latitudes del mundo en los museos y galerías más importantes del planeta, así la URSS, EEUU, Francia, España, Italia, las dos Alemanias, China, y toda América recibieron su obra y mensaje con honores; entre ellas, el pasado año 2020 se realizó una exhibición de su obra en el Museo Savina de Corea del Sur; estableciéndose una excelente relación de colaboración entre ambas instituciones.

En este 2021, la Fundación Guayasamín se complace en retomar la realización de exposiciones temporales de otros artistas en sus salas. En esta ocasión presentamos la exposición de uno de los artistas contemporáneos más destacados de Corea del Sur: Ahn ChangHong, quien además de la ruptura con los conceptos tradicionales del arte, también eleva su voz a través de su arte a la crítica social en favor de quienes han sido sufridos por la violencia humana o han sido olvidados.

Cabe recalcar que es la primera vez en la que una exposición de otro artista exhiba sus obras en la Capilla del Hombre, pero estamos seguros de que la obra de Ahn ChangHong se merece este espacio, y dialoga con la obra de Guayasamín y se convierte esta exposición en un encuentro de culturas y hermandad de continentes.

A través del carácter experimental de las técnicas y materiales que utiliza en sus series de esculturas en gran formato “Ceguera”, o las máscaras de la serie “Rostros” nos transmite su carácter expresivo.

Invitamos a los espectadores a conocer y adentrarnos en la pintura de Ahn ChangHong, y en su propuesta plástica con la que podemos profundizar en el diálogo e interpretación del arte contemporáneo de este artista, y en el intercambio cultural de Corea y Ecuador.

인사말

파블로 과야사민
과야사민재단 이사회 회장

과야사민재단은 1975년부터 2010년까지 키토의 기획 전시를 위한 주요 사설 전시장을 제공하여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이 우리의 문화 공간에 조형 예술을 선보일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과야사민재단이 주소지를 변경하고 새로운 공간을 과야사민 작품의 전용 전시관으로 활용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조형 예술 분야에서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전 세계 곳곳의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100회 이상의 오스왈도 과야사민 특별 기획전이 열렸고,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중국에 이어 지난 2020년 한국의 사비나미술관에서 과야사민전이 개최되어, 이를 계기로 양 기관 간에 우호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습니다.

2021년, 과야사민재단은 기꺼운 마음으로 다른 예술가들의 기획 전시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가장 저명한 현대 예술가 중 한 명인 안창홍의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예술의 개념을 타파하고, 작품을 통해 폭력이나 소외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으로 ‘인류의 예배당’에 과야사민 이외의 작품이 최초로 전시됩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안창홍의 작품을 배치하여 과야사민과 직접 교감할 기회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통해 이 곳은 대륙을 넘어 문화와 형제애가 어우러지는 장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눈 먼 자들〉의 조형물에 사용된 실험적 기법과 재료, 그리고 〈얼굴들〉의 가면 시리즈를 통해 작가의 표현적 성격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이 안창홍의 그림을 보고 느끼며 그의 예술 세계를 통해 메시지와 현대 미술에 대한 해석을 심도 있게 사유할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PALABRAS DE BIENVENIDA

Rodrigo Villacís Molina
Crítico de arte, colaborador de Fundación Guayasamin

Es muy difícil para la crítica occidental apreciar adecuadamente la obra de un artista coreano, con la extraña visión plástica de Ahn ChangHong(1953), quien expone en el museo Guayasamín; pintor nacional que en su momento expuso en la capital de ese país asiático, despertando, así mismo, expectación entre los entendidos.

Y es que si comparamos las obras del ecuatoriano con la producción del visitante asiático, no es posible hallar similitudes. Sobre todo porque la producción de nuestro artista está profundamente arraigada en los ancestros nacionales, y supuestamente -arriesgo- otro tanto ocurre con Ahn ChangHong. Y esa dificultad, a la que aludimos al principio, se profundiza en esta ocasión, porque no disponemos más que de un catálogo que quizás no muestra sino un aspecto de su producción.

Y ¿cuál es ese aspecto? Tenemos reproducciones de obras que en nuestro lenguaje calificaríamos de barrocas, por su horror al vacío, cromáticamente interesantes unas, y otras con contenidos arbitrarios, no identificables, o con objetos diversos. Hay también símbolos como corazones a los que se adhieren extraños pinchos.

Pero en los que Ahn ChangHong insiste, siempre a juzgar por el catálogo, es en los rostros humanos. Se repite indefinidamente, matizando la misma figura de las más diversas maneras. Es como si ese tema lo obsesionara, tomándolo cual fondo de un juego de experiencias cromáticas, casi siempre con la técnica digital. Pero también la expresión se vale, en ciertos casos, de las tres dimensiones, con materiales adecuados. Se ven los ojos rasgados, los ojos artificialmente abiertos, como sometidos a una cirugía, y hay, así mismo, rostros caricaturescos. Hay también máscaras de los más diferentes aspectos, que incluyen lo feo, como oposición natural a lo bello. Y, por fin, alguna alusión a los instrumentos musicales, a lo zoológico y a lo erótico.

En todo caso, bienvenida esta muestra, que nos revela otra visión de la plástica.

인사말

로드리고 비야시스 몰리나
미술비평가, 과야사민재단 협력 평론가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선보이는 안창홍은 한국 예술계의 존경을 받는 화가입니다. 그러나 색다른 조형 예술 세계를 풀어내는 안창홍(1953)의 작품을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절한 비평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콰도르의 예술은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에 뿌리를 두고 있고 안창홍은 작품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기 때문에 에콰도르와 안창홍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유사성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창홍의 작품을 서양의 관점에서 비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창홍 작품 세계의 면모를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특별전을 통해 조명하고자 하는 요소는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공허함에 대한 공포감, 흥미로운 색채, 명명하기 어려운 자유로운 소재, 다양한 오브제 등 입니다. 안창홍의 작품 세계는 재해석된 바로크 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전시엔 출품되지 않았지만 〈화가의 심장〉도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안창홍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재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됩니다. 안창홍이 집념을 가지고 등장시키는 얼굴은 다채로운 색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요소도 가미됩니다. 각각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여 세 가지로 표현된 〈화가의 손〉과 같은 작품을 비롯하여 〈눈 먼 자들〉, 수술을 한 듯 부자연스럽게 뜯 눈, 희화적 요소가 들어간 〈얼굴들〉, 아름다움에 반대되는 추함 등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마스크〉, 그리고 작품에 녹아 있는 음악적 요소, 동물적이고 에로틱한 성격도 작가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번 전시회 개최에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안창홍의 조형 예술 세계를 에콰도르에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PRÓLOGO

La obra de Ahn ChangHong.
Réquiem u homenaje dedicado a los seres sin nombre.

Kho ChungHwan
Crítico de arte

A horas muy tardías o tempranas, todas las personas que abarrotaban las calles se han marchado. ¡Quedaron vacías! La calle de la ciudad sin la multitud que lo llenaba llega a ser el “vacío” mismo. Se siente aún más profundo, cuando las polillas atraídas por la luz aletean pegadas en la vitrina y hacen volar sus escamas. Ese vacío, hasta da escalofrío, cuando me paro cerca y escucho el sonido que suena al romperse las alas chocando contra el cristal. Una ciudad vacía donde solo fluye la soledad como agua del río. ¿Qué otra cosa podría ser sino una ciudad de los fantasmas? ¡Ciudad de los fantasmas! Ya hace tiempo que planeaba dibujar una ciudad de los fantasmas; y mi obra en serie “Moda de los Fantasmas” es el inicio de mis primeros trazos sobre los fantasmas...

- Ahn ChangHong

La Moda de los Fantasmas.
El budismo dice que el sufrimiento nace del deseo. Sin deseo tampoco existe sufrimiento. Esta doctrina tiene varias disciplinas que enseñan sobre la vanidad del deseo. Entre ellos el más tradicional es “la forma es vacuidad y la mismísima vacuidad es forma”. Todo lo que sea forma es vacío y todo vacío mismo es la forma. Que llamemos forma a la forma y vacío al vacío es solo un fenómeno de nuestro corazón, por ende, es un deslumbramiento. Por consiguiente, no es más que un deseo. Por lo tanto, es un mantra para no ser perturbado por el corazón y no dejarse engañar por los deseos. Ocurre lo mismo en el cristianismo. La biblia menciona que todo es vanidad de las vanidades, por lo cual todo trabajo (así pues, el deseo) del hombre es vano. Como son refranes

religiosos, tienen un aspecto proclamativo, pero en parte nos hacen meditar sobre la naturaleza del ser desde el punto de vista ontológico. Mientras tanto, Freud plantea al ser humano como animales del deseo. Argumenta que sin la presencia de los deseos no son humanos. Si no existen los deseos, tampoco existen los humanos. Solo con su presencia llegan a ser plenos humanos. Por lo tanto, se presentan la paradoja de la existencia y el dilema de la vida, en el hecho de que el ser humano nace con los deseos y termina sufriendo por los mismos.

Digo deseo innato. Un deseo intrínseco e inherente. Pero por otra parte, están los deseos que aparecen después del nacimiento. Aquellos que se definirían deseos descontrolados basados en la reproducción y en el ciclo de deseos abruptos que tienen estrecha relación con el sistema del capitalismo, el cual ejerce los deseos maquinalmente sin sentimientos ni consideración. El deseo en el capitalismo es algo relativo. Un deseo siempre es un pretexto para pasar a otro, y este cobra sentido solo cuando despierta a otro deseo más grande. Si fuera el caso contrario, en el cual un deseo se satisface inmediatamente y si siempre funciona así, el mecanismo del capitalismo pronto se detendría. Porque llegarán a agotarse las fuentes que generan lucro. De esta forma, el capitalismo se completa con el ciclo infinito de los deseos. Dentro de este ciclo, se crean incluso deseos inexistentes y también se sugieren.

Y aquí está la ciudad. Es un teatro donde se estrenan los deseos del capitalismo. La ciudad (o misma) en sí, está compuesta por los deseos del capitalismo basados en la norma de la maximización de la eficiencia. Por ende, quizá la ciudad se define como

el mismísimo deseo. ¿La muerte sería ajena al tema? Tal vez el deseo en la ciudad no duerme incluso hasta el momento del último suspiro (la muerte se comercia paladinamente, y si uno no tiene dinero, no puede morir a voluntad, o por lo menos con dignidad). La ciudad fabrica los deseos de día y los consume en la noche. La ciudad de noche, mientras consume sus deseos recobra más su forma original. Durante la mañana, los deseos no se ven bien al estar dentro de la suave luz del día, pero de noche, cuando la luz y oscuridad contrastan como el filo de un cuchillo, los deseos se hacen más claros y evidentes, y esto hace que la noche de la ciudad se vea incluso más atractiva. Es la ciudad del placer, donde el deseo embellece su noche.

Y la flor de la ciudad del placer, es definitivamente la prenda. En un principio, la ropa se empezó a utilizar para protegerse del entorno hostil y tapar la vergüenza. O sea, un motivo de instinto animal y otro cultural respectivamente. Lo cultural resulta algo cuestionable, de todos modos, hasta aquí corresponde el significado y las funciones básicas de las ropas. Mas tarde, la ropa evoluciona adaptándose a la forma de vida civilizada de los humanos. Un ejemplo típico es el uniforme. En este proceso de evolución interviene la conveniencia de los sistemas, o quizá diría el deseo de los sistemas, el cual permite identificar y designar a sujetos individuales entre sujetos indistintos, logrando así eficiencia en la gestión.

Las formas más evolucionadas de la ropa surgen por motivos estéticos y corresponde a la forma final. Ahora las personas utilizan las prendas por razones estéticas. Dependiendo de la ropa que viste, puede expresar su personalidad, mostrar su gusto y ostentar

su riqueza. Por ende, la prenda que uno lleva puesta se ha convertido en un signo igual que nos muestra su personalidad, gusto y su poder económico. Cada una de las personas se han convertido en un signo de valor igual al estatus, y visten prendas apropiadas a su posición social. Y en este proceso de evolución intervienen los celos y la envidia hacia ciertos tipos de prendas, o sea interviene el deseo de querer ascender la clase social.

Si decimos que la ciudad es un teatro donde se estrenan los deseos del capitalismo, entonces las vitrinas son los teatros exclusivos donde muestran las marcas de lujo que corresponden al clímax de los deseos. Deslumbrantes inclusive desde lejos, las vitrinas, que hacen que su noche sea aún más atractiva, son el ícono y el típico signo de la ciudad. En estas vitrinas, que bordean la noche de la ciudad, viven los fantasmas. Viven los galanes y las mujeres más bellas sin vida ni alma, para quienes el tiempo se ha detenido en sus años más hermosos, vistiendo de las ropas más caras, seducen a los deseos más esenciales. Quizás Ahn ChangHong vio a estos fantasmas de las vitrinas que iluminan solitariamente la noche de la ciudad vacía, donde las personas se han ido por completo como marea baja. Habría visto la sombra del deseo. Y pintó ropas totalmente vacías, sin vida ni alma. Sin embargo, da una sensación extraña, parece que estas ropas vacías están tomadas por otras vidas y otras almas. Serán las vidas y almas de los deseos efímeros encarnados.

El artista, antes de pintar estas series de cuadros, los dibujó primero en su teléfono inteligente. Los artistas, por naturaleza, son personas que tienen mucha curiosidad y un sentido muy sensible y perceptible a

los nuevos medios en el aspecto de que no quedan rezagados a la modernidad y están en constante búsqueda de medios más apropiados que les permita expresarse mejor. En este contexto, la pintura digital abrió las puertas de la nueva era de este artista. ¿Qué es lo digital? A pesar de que se parece a la realidad perceptible, de hecho, es algo virtual, una ilusión, un fantasma que solo existe en forma de imagen. Por ende, las personas de la actualidad viven en la realidad llena de medios digitales de punta que se percibe con los sentidos, pero al mismo tiempo también viven en una realidad virtual. Viven con una personalidad perceptible, pero también con otra virtual; viven simultáneamente una vida doble y disgregada.

De esta manera, si consideramos que la gente actual vive una vida auto-disgregada y medio fantasmal, el fantasma podría proponerse y registrarse como un nuevo sentido y emotividad moderna. Por lo tanto, podría opinar acerca de la moda y la ciudad de los fantasmas que nos propone el artista, que su intención visible es convocar a la sombra del deseo efímero creado por el fetiche del capitalismo, y una intención más profunda es revelar la soledad, el vacío y el tedio de la gente actual; emociones que también están colgadas a la sombra. Hal Foster vio al deseo, a la muerte y a la belleza como algo íntegro. Entonces, se podría decir que son las tres caras del deseo. Asimismo, el artista se sirvió de La Moda de los Fantasmas como medio y dibujó la belleza fatal del deseo, que en su interior vacila la sombra de la muerte (de hecho, el artista ha dibujado prendas sangrientas).

Quise hablar sobre la historia de las vidas de locura y barbaridad, donde todos son

víctimas, pero también agresores uno con el otro y consigo mismo. Víctimas que han sido machacadas, destrozadas, enterradas, ni siquiera con nombre. Borradas por el salvajismo y el egoísmo del poder; el poder que ha sido trastornado en el transcurso de la historia del sufrimiento. Aquellas personas que no solo quedaron anónimas, sino que su existencia en sí ha sido evaporada de la historia. Quise reunir a las muertes amargas e injustas de estas personas para dedicarles por lo menos un acto fúnebre.

- Ahn ChangHong

Triste Evaporación, Rostros y Máscaras.

En Roma medieval marcaban un estigma en el cuerpo de los esclavos para que no puedan escapar. Los nazis obligaron a los judíos a llevar un signo de estrella amarilla en sus ropas. Los consideraban como objetos, despojando su dignidad humana y asignándoles una marca en particular (asignar un signo a los objetos). Giorgio Agamben nombró Homo Sacer a estas personas restringidas de personalidad y rebajadas a objetos. Por ende, los llamó vidas (humanos) puestas al desnudo. Personas que no importa que se los mate, como son meros objetos y no humanos. Son especies humanas, pero no personas, son seres bajo la ley de la extraterritorialidad. No se trata de personas que en casos pueden infringir la ley, sino son aquellos que no se los puede proteger ni siquiera con la ley. Agamben dijo que todos somos homo sacer latentes. Así que, probablemente en este momento existen varios homo sacer latentes alrededor nuestro. Por ejemplo, la estación de Seúl es conocida como un lugar sagrado de las personas sin hogar. Las personas no miran ni reaccionan cuando uno de ellos se les acerca. Los

consideran como un objeto que ni siquiera podrían ser peligrosos. Solo que rara vez, cuando esas cosas revelan su personalidad, a uno le da susto.

Rene Girard llamó chivo expiatorio a estas vidas desnudas (Agamben marca un signo y Girard designa). Toda sociedad sana y solida se basa en un sistema de chivo expiatorio. Siempre que la sociedad muestre síntomas de riesgo, el sistema debe designar y entregar a la gente un chivo expiatorio para que puedan liberar y saciar su violencia latente. Cuando este proceso falla, el sistema está en peligro. Incriminar, divulgar acusaciones en los medios, investigar ya con el blanco predefinido, corresponden a las variaciones del proceso, en el aspecto de que tienen que ver con las formas de designar.

La teoría del poder de Michel Foucault también nos presenta muchas implicaciones. En su teoría, el poder vigila a los sujetos individuales. El sistema de vigilancia física que encierra directamente el cuerpo de la persona, evoluciona a mecanismos indirectos y abstractos de vigilancia que penetran en la conciencia. En este proceso, se crearon el hospital psiquiátrico y la prisión. El problema radica en el psiquiátrico. Dentro del mismo, junto a las personas con problemas mentales, mantuvieron presos en instalaciones aisladas a los insubordinados quienes tenían el potencial de apelar la tranquilidad de la sociedad. Notamos la perspicacia de Foucault, al observar que poco o nada ha cambiado desde el pasado hasta el presente. Foucault argumenta que inclusive, los diversos sistemas de seguridad social son resultados de la planificación del sistema que apunta a preservar y mantener la mano de obra más saludable, o sea resultados del Biopoder. Quizá vio como problemática el

punto de vista que considera al ser humano como una herramienta.

Al respecto, también encontramos el hombre excedente (en realidad “excedente”) de Georges Bataille. Como bien se sabe, el capitalismo funciona bajo el principio de la priorización de la economía y la ley de la maximización de la eficiencia. En este proceso, las cosas no rentables y poco eficientes son expulsados del sistema; entre ellas está la muerte y el envejecimiento, la enfermedad y el deseo descontrolado (y el arte); y el nombre puesto a estas cosas es ‘excedente’. Como el excedente ha sido expulsado por el sistema, lleva consigo una causa latente que puede detonar en una revolución, y esto es motivo de inquietud constante para la sociedad. Foucault habría llamado heterotopía al lugar donde se encuentra la causa latente de la revolución pero que no existe, al lugar que existe en la realidad pero que ha sido borrada (por lo tanto, evaporada) de la conciencia de las personas.

Ahn ChangHong dibuja y crea obras tridimensionales de las vidas despojadas, personas que ni la ley ha podido protegerlas, quizá de gente sin hogar, de víctimas de la era y de la historia, de personas que murieron encerradas en aislamiento en el psiquiátrico por sus ideas rebeldes, de personas rebajadas a objetos o herramientas en su lugar de trabajo, de personas excluidas de la sociedad, de los denominados excedentes, de personas que él lo llama tristemente evaporadas. Son personas que no solamente no tienen un nombre, sino que también su existencia ha sido evaporada de la historia. El artista convoca a estas muertes atroces y dedica un acto fúnebre. Seguirá con sus pinturas (Triste Evaporación), pero las obras tridimensionales

pequeñas (Máscaras) y las grandes (Rostros) fueron planeadas exponerse en 49 series. Simboliza el ritual religioso que espera a que el espíritu del muerto llegue finalmente a los cielos después de haber ambulado durante 49 días por el mundo.

Cuando vemos a personas que murieron de esta forma, todos quedan machacadas, destrozadas y enterradas, con rostros irreconocibles. Sin embargo, me parece escuchar las agonías del último suspiro en gritos, ver la encarnación del silencio en un pedazo de material triturado. También me parece ver otra versión de la serie de Rehenes de Jean Fautrier. De hecho, incluso podría decir que estas personas son chivos expiatorios y rehenes atrapados por su generación, su historia y su realidad.

¿Qué puedo comentar sobre Máscaras? Si la serie Triste Evaporación y Rostros se enfoca en el ritual del viaje a los cielos que consuela a los espíritus de los muertos, la serie Máscaras pone su peso en los principios de la realidad. Manifiesta cómo vive la gente de hoy. ¿A qué me refiero? Las personas viven con dos personalidades: persona e identidad. Como bien saben, la palabra ‘persona’ viene de la etimología ‘máscara’. Significa que son sujetos de la sociedad, pero también de un sistema. Son sujetos enmascarados que están al servicio de los deseos sociales y de los sistemas. Y la identidad es ese otro ente oprimido, que está oculto detrás del sujeto enmascarado. De esta forma, la gente vive una vida auto-disgregada. El problema se presenta cuando la brecha entre los dos sujetos se hace más distante y confusa. Cuando llevamos la máscara por un largo tiempo, ella parecer ser nuestro propio rostro, y nos olvidamos el hecho de que en nosotros existe otro sujeto (en el budismo 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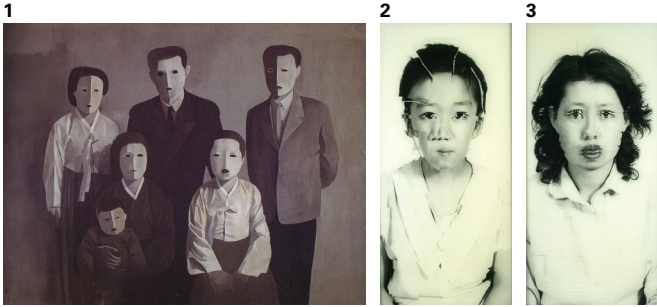
verdadero yo) distinto a la máscara. El artista se sirvió de la serie Máscaras para dibujar los retratos de personas quienes la máscara se ha convertido en sus propias caras.

“Ese espacio donde solo existen las tácticas de supervivencia y la cruda frialdad, ese lugar es la ciudad. Una selva salvaje...”.
- Ahn ChangHong

Ceguera

A menudo dicen que los ojos son las ventanas del alma. También comentan que cuando miras a los ojos puedes ver el corazón de una persona. La gente no simplemente ve las cosas. Ver consiste en un acto cognitivo integral de observar, pensar, analizar y juzgar simultáneamente. De serlo así, los ojos de una persona se consideran asimilables con sus pensamientos, su corazón, su conciencia, sus emociones y sus deseos; por ende, quizás también con su identidad. De serlo así, ¿podríamos decir que, sin estos ojos, la persona no tiene ojos ni identidad? Si existe una persona que tiene los ojos abiertos, pero que no ve nada ¿cómo definiríamos el caso?

El artista es atraído especialmente por rostros que parecen máscaras y por ojos inexpresivos. Ya hace mucho que tiene este interés y remota hasta sus primeras obras. Tengo recuerdos vivos de la impresión algo extraña y grotesca que despertaba las caras que parecían máscaras dentro de una pantalla monótona en blanco y negro, la serie de retratos que tenían ojos negros, sin blanco e inmóviles, y que parecían estar mirando el abismo. Desde entonces, el artista creó variaciones de estos ojos negros, como ojos aplastados, ojos triturados, ojos borrados, ojos cerrados, ojos llenos de moscas quizás



1. Retrato Familiar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130.3×162.2cm, 1980
2, 3. Rostro Roto
Epoxi sobre Collage Fotográfico, 110×52cm, 2006

podridos, ojos mecánicos como el de un androide, ojos cubiertos con vendas que parecen parches, (tal vez simboliza la ceguera), ojos vacíos solo con párpados y sin pupila, ojos inexpresivos que parecen haber clavado canicas de cristal, hizo que los ojos expresen en lugar de él la esencia de la lógica de la situación que quiso transmitir.

En este contexto está la Ceguera. Al igual que en la serie Máscaras, es una obra que pone énfasis en los principios de la realidad, y es la historia sobre personas que viven la realidad en este momento, en este lugar. Es la historia sobre personas con los ojos abiertos pero que en verdad no pueden ver nada. Una historia acerca de personas con ojos, pero prácticamente ciegas, por ende, es historia de gente sin ojos ni identidad. Todas estas personas con ceguera tienen los ojos inexpresivos como si hubiesen incrustado en ellas canicas de cristal. En sus cuellos y rostros, tienen ocultas o expuestas letras que declaman el deseo, las lágrimas, la lucha, la supervivencia del más apto, las batallas y los combatientes. Quizás simbolizan la autoconciencia de las personas acerca de la



4. Máscaras 2017-7
Técnica Mixta sobre FRP, 155×110×50cm, 2017
5. Evaporación Triste 2019-2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38×38cm, 2019

realidad, que parece ser una plena guerra, sin consideración ni emociones, en aprietos para sobrevivir. En sus obras, también está dibujada un código de barras, con la cual operan un sistema eficiente de vigilancia con el pretexto de la provisión de información, también aparece un ala rota que representa el deseo oprimido y frustrado; tal vez en otra pieza tiene grabada o dibujada la fecha de la muerte como un código.

Hay un punto interesante, llama la atención el agujero de una cerradura. En la serie Máscaras, este hueco se encuentra en medio de la frente, y en la serie Triste Evaporación el agujero de la cerradura está en uno de los ojos. ¿Es la entrada hacia la conciencia o la inconsciencia? El problema es que el hueco no fue hecho por voluntad de uno. ¿Entonces por quién? Fue hecho por el sistema. El sistema lo creó para implantar sus ideologías.

Citando nuevamente la teoría del poder de Michel Foucault, el poder ha desarrollado un mecanismo de vigilancia, que a partir del arresto, el encierro y la tortura directa del cuerpo, penetra gradualmente de forma

indirecta a la inconsciencia de los sujetos individuales. Y mediante la educación, transmiten sus modelos ejemplares con casos lógicos, razonables y normales, luego los divulgan apelando al consenso social, el cual hará que sus disciplinas parezcan la moral y la ética. Mediante este proceso, cuando la ideología del sistema finalmente penetra en la inconsciencia de los sujetos individuales, los radares de vigilancia ya no necesitan apuntar a individuos, porque han completado su mecanismo de vigilancia mutua, donde cada cual apela a la conciencia. El agujero de la cerradura perforada en la frente o en uno de los ojos simboliza el proyecto de implantación y transmisión de ideologías del sistema.

De esta forma, a través de la serie Ceguera, el artista plasmó en sus dibujos los retratos de las personas que tienen ojos pero que no pueden ver, personas que no tienen ojos y ni tienen identidad (el propio yo), y personas inexpresivas para quienes la ausencia del propio yo es la estrategia de supervivencia (ser descubiertos sus expresiones y emociones significa la muerte). Una buena obra no es nada fácil. Debe tener profundidad y peso infinito. El arte debe permitir que, en un futuro lejano, uno pueda inferir sobre la generación del pasado a través de la obra del artista. Es decir, la obra debe conllevar el espíritu de la una época... Ese espacio entre la luz y la sombra, entre el deseo y la moderación, entre la materia y el espíritu, entre el bien y el mal, entre el aquí y el allá; esa brecha entre todos los valores opuestos de este mundo. El arte no es un producto derivado de las normas y conclusiones; y llega a ser más bella cuando florece en medio de la ambigüedad, la inquietud y las tensiones del conflicto. - Ahn ChangHong



1. Excrementos del artista
 Acrílico sobre Tela, 194×97cm, 1999

Por otra parte, el artista propone obras como El corazón del artista y La mano del artista, que reflejan la autoconciencia del artista. La cagada del artista, obra que parado en la cima de una gran montaña defeca hacia el mundo, también se incluye en este contexto de expresar la autoconciencia del artista. Sería interesante comparar con la otra Mierda del Artista de Piero Manzoni, quien expone y vende su mierda en una lata (Manzoni también puso en exposición el Aliento del artista).

El artista es uno de los artistas que vivió la época del “Minjung art” (El movimiento de arte a favor del cambio social y que se levantó junto al movimiento de democratización). En aquel entonces, cada vez que tenía oportunidad, solía hacer hincapié en la importancia que tiene el grado de perfección de la formalidad. Este énfasis es para tener cautela del descuido de la formalidad frente a la existencia de un sesgo hacia las ideologías. Con esta disposición, el artista tuvo éxito en transmitir su ideología y alcanzar el grado de perfección de la formalidad al mismo tiempo. E incluso abrió un nuevo horizonte pictórico distinto, donde la ideología y la formalidad se contraponen y se armonizan de la manera más singular, y producen una tensión y un pathos peculiar. Se posicionó en el sector con su formalidad única, basada en la ideología, el espíritu, la sensibilidad y la armonía de las emociones de su épo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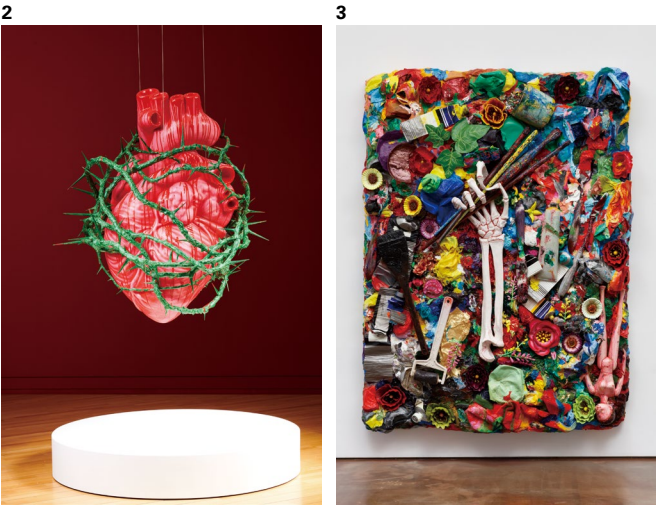
Aún sigue vívida la impresión que tuve sobre las muestras especiales del gran pintor ecuatoriano Oswaldo Guayasamín, que se exhibieron por primera vez en Corea en el Museo SAVINA, en invierno pasado (del 19 de diciembre del 2020 al 2 de febrero del 2021). A pesar de que limitaron el

número de visitas con reservas anticipadas a causa del padecimiento mundial del COVID-19, se comenta que la exhibición fue tan concurrida, que incluso el museo organizador quedó sorprendido por la gran ola de visitas.

Los cuadros del artista donde dibujó la guerra y la violencia que él vivió, la gente que vio quedarse completamente inerte por las atrocidades de la política y del poder, las personas desaparecidas sin nombre ni presencia habrán conmovido el corazón de las personas. Habrá evocado un sentimiento de consuelo que se da al compartir similares experiencias y recuerdos dolorosos, aunque no sean los mismos. En los jóvenes tal vez, despertó un sentimiento en común, sobre la absurda realidad que amenaza la existencia humana. Conmover trascendiendo el tiempo y el espacio, esto es posible porque es arte precisamente, y es el poder que tiene.

Este evento se celebra como una exhibición de respuesta a las muestras de Oswaldo Guayasamín en Corea. Desde el establecimiento de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de Corea y Ecuador en 1962, el próximo año (2022) marca su sexagésimo aniversario. Con ocasión de la conmemoración de los 60 años de los lazos diplomáticos, espero que esta exhibición sea un catalizador de los futuros intercambios culturales entre los dos países.

Esta exhibición de carácter monumental organizada a nivel nacional, es posible gracias al pleno apoyo y la estrecha cooperación de las administraciones y autoridades de Relaciones Exteriores de ambos países y de los personales de los museos. A la vez, es una ocasión muy significativa en el aspecto de que el Museo de Guayasamín, uno de los mejores museos



2. Corazón del artista2
 Acrílico sobre FRP Aluminium, 138×138×150cm, 2019
3. Mano del artista1, Acrílico sobre FRP, 300×220×45cm, 2019

de Ecuador, presente por primera vez la exhibición privada de un artista coreano. Asimismo, es relevante que La Capilla del Hombre, otro espacio que tendrá lugar las muestras, exhiba por primera vez obras de un artista extranjero, luego de Francisco de Goya en 2009.

La visión es decisiva en el arte. Se puede definir como la actitud y posición del artista con respecto al mundo. Y parece que los dos artistas, Guayasamín y Ahn ChangHong comparten la ira hacia el mundo y la compasión hacia la existencia. Quizás la ira y la compasión sean las dos caras de la moneda. Personalmente, opino que la compasión por la existencia es la virtud más fundamental de quien ejerce el arte. En ese sentido, aunque los dos artistas nunca han llegado a conocerse, podría decir que están unidos con un lazo invisible de compañerismo.

이름도 없는 존재들에 바치는 진혼곡 혹은 오마주

고충환
미술비평

아주 늦거나 아주 이른 시간 길을 가득 메우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인파로 채워지지
않은 도시의 거리는 공허하다. 불빛을 찾아
날아든 나방들이라도 쇼윈도에 달라붙어
비늘 가루를 날리며 퍼드득덜 땀 더욱 그렇다.
가까이에 서서 유리창에 부딪치며 날개뼈
부러지는 소리라도 들을 땀 너무 공허해서
소름이 돋는다. 적막감만 강물처럼 흐르는 텅 빈
도시. 이것이 유령의 도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유령의 도시! 아주 오래전부터 유령의
도시를 그릴 계획이었고, ‘유령패션’ 연작이
‘유령’ 그리기의 첫 시작이다. 허깨비이거나
유령이거나. - 안창홍

유령패션. 불교에서는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다. 욕망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불교에는
이처럼 부질없는 욕망을 주지시키는 전언이 많다.
그중 전형적인 경우가 색즉시공공즉시색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색을 색이라 하고
공을 공이라 하는 것은 다만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현상 그러므로 현혹, 다시 그러므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에 동요되지도 말고
욕망에 현혹되지도 말라는 주문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헛되고 헛되니 인간이 하는 모든 일
(그러므로 욕망)이 헛되다고 성경은 전한다.
종교적인 전언이어서 좀 선언적인 감이 없지 않다
쳐도 존재론적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반면, 프로이트는 인간을 욕망의 동물로
정의한다. 욕망이 인간을 만든다. 욕망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욕망으로 인해 비로소 인간이다.
이처럼 욕망을 타고난 인간이 그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에 존재의 부조리가 있고 삶의
딜레마가 있다.

타고난 욕망이라고 했다. 생래적인 욕망이고
존재론적 욕망이다. 반면, 생후적으로 주어진
욕망도 있다. 그리고 이처럼 생후적인 욕망이
그 자체 욕망의 도가니랄 수 있는, 밑도 끝도
없는 욕망의 재생산과 순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감정도 없고 인정도 없이 그저 욕망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인 자본주의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돈은 국경도 없고 눈도 없다). 자본주의의
욕망은 상대적이다. 하나의 욕망은 언제나
다른 욕망으로 건너가기 위한 구실이며, 더 큰
욕망을 불러들이기 위한 계기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이 된다면, 그것도 매번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멈춰 서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욕망의 무한순환으로
자본주의는 완성된다. 그 무한순환구조 속에서
심지어 없는 욕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제안되기조차 한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가 있다. 자본주의의
욕망이 상영되는 극장이다. 도시 자체가 이미
효율성 극대화의 법칙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의
욕망으로 형성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어쩌면 도시 자체가 이미 욕망이다. 죽음이라면
모를까, 어쩌면 죽는 순간에서마저 도시에서
욕망은 잠들지 않는다(공공연하게 죽음이
거래되고 있고, 여기에 돈이 없으면 마음대로,
최소한 품위 있게 죽을 수도 없다). 도시는 낮에

욕망을 생산하고, 밤에 욕망을 소비한다. 여기서
욕망을 소비하는 밤에 도시는 더 도시답다. 낮
동안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욕망은 잘 보이지
않지만, 빛과 어둠이 칼날처럼 대비되는 밤에
욕망은 더 잘 보이고, 이로 인해 도시의 밤이
아름답게 보이기조차 한다. 욕망이 밤을 아름답게
만드는 향락도시다.

그리고 향락도시의 꽃으로 치자면 단연
옷이다. 원래 옷은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입기 시작했다. 각 동물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문화적인 이유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여기까지가 옷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후 옷은
문명화된 인간의 삶의 행태에 맞춰 진화하는데,
그 전형적인 경우가 유니폼이다. 그 과정에
제도의 편의성 그러므로 어쩌면 제도의 욕망이
매개되는데, 무분별한 주제, 익명적인 주제로부터
개별주체를 특정할 수 있고 지목할 수 있고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옷의 최종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가장 진화한 경우가 바로 미학적인 이유다. 이제
사람들은 미학적인 이유로 옷을 입는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취향을 드러낼 수 있고, 재력을 과시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가 입는 옷이 곧 그의 개성을, 취향을,
재력을 말해주는 등가치적 기호가 되었다.
사람들이 저마다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신분의 등가치적 기호가 되었다. 여기에 어떤
옷에 대해서는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성이, 다시
말해 신분 상승 욕망이 매개된다.

그렇게 도시가 자본주의의 욕망이 상영되는
극장이라고 한다면, 쇼윈도는 욕망의 꽃에
해당하는 명품이 상영되는 소극장이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도시의 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쇼윈도는 도시의 전형적인 아이콘이며 기호에 해당한다. 그렇게 도시의 밤을 수놓는 쇼윈도에 유령들이 산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성장을 멈춘, 가장 값비싼 옷을 걸친, 욕망의 표상으로 유혹하는,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는 선남선녀들이 산다. 아마도 안창홍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도시의 밤을 저 홀로 불 밝히고 있는 쇼윈도에서 이런 유령들을 봤을 것이다. 욕망의 그림자를 봤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는 텅 빈 옷들을 그렸다. 그럼에도 묘한 것이 그 텅 빈 옷들에는 또 다른 생명이며 영혼이 깃든 것 같다. 덧없는 욕망의, 인격화된 욕망의 생명이고 영혼들일 것이다.

작가는 원래 이 일련의 그림들을 그리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먼저 그림을 그렸다. 작가들은 체질적으로 새로운 미디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과 호기심의 소유자들이다.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고, 자기를 표현하게 해주는 더 적절한 매체를 찾아 헤맨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디지털 페인팅(프린트?)이 작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디지털이 뭔가. 감각적 현실과의 닮은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가상이다. 허상이다. 유령이다. 그러므로 각종 첨단 디지털 매체로 무장한 현대인은 감각적 현실을 살면서 동시에 가상 현실도 사는, 감각적 인격으로 살면서 동시에 가상 인격으로도 사는, 이중적이고 자기 분열적인 삶을 산다.

이처럼 현대인이 자기 분열적인 그러므로 이미 반쯤은 유령과 흡사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본다면, 유령은 현대적 감각이며 감수성으로 새롭게 제안되고 등재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제안하고 있는 유령패션, 나아가 유령도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물신이

창조한 욕망의 덧없는 그림자를 소환하는 것이 그 걸 뜻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에 부수되는 현대인의 고독과 공허와 권태를 드러내는 것이 그 속 뜻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할 포스터는 욕망과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하나로 봤다. 욕망의 세 얼굴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유령패션을 매개로 작가는 그 이면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작가가 그린 옷들은 실제로 피를 흘리고 있다),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욕망을 그려놓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혹은 자신이 자신에게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광기와
야만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질곡의
역사를 거치면서 빼뚫어진 권력의 야만과
보신주의로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파묻혀서
이름도 없이 잊힌 시대의 희생자들, 단지 이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들, 나는 그들의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들을 불러 모아 제의라도 치러주고 싶었다.**

- 안창홍

이름도 없는, 얼굴들 그리고 가면들. 중세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몸에 낙인을 찍었다. 나치는 유대인들이 노란 별 표지를 옷에 달고 다니게 했다. 인격을 박탈하고 특정 표시를 부여해 사물화한 것이다(사물의 기호). 조르조 아감벤은 이처럼 인격을 박탈당한 사람들, 한갓 사물로 전락한 사람들을 호모 사케르, 그러므로 벌거벗은 생명(인간)이라고 불렀다. 인격이 아닌 사물인 만큼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고, 치외법권자들이다. 때로 법을 어겨도 되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법으로마저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감벤은 우리 모두 이런 잠재적인 호모 사케르들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잠재적인 호모 사케르들은 지금 여기 우리 주변에도 많다. 예컨대 서울역은 노숙자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노숙자들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반응하지도 않는다. 위험하지조차 않은 사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드물게 사물이 인격으로 드러날 때 화들짝 놀라거나 할 뿐.

르네 지라르는 이런 벌거벗은 생명을 희생양이라고 불렀다(아감벤은 표시하고, 지라르는 지목한다). 모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는 하나같이 이런 희생양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가 위태로워질 조짐이 보일 때마다 제도는 민중에게 희생양을 지목하고 내주어 잠재적인 폭력성을 발산하고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일에 실패할 때 제도가 위태로워진다. 프레임 씌우기와 좌표 찍기 그리고 표적 수사가 마찬가지로 지목의 형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변형된 경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역시 시사 하는 바가 많다. 권력은 개별주체를 감시하는데, 몸을 직접 구속하는 능동적인 감시체제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파고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화한다. 그 과정에서 정신병원이, 감옥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정신병원 쪽에 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잠재적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 불순분자(?)들을 정신병원에 가두어 격리 수용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에서 푸코의 혜안이 느껴진다. 심지어 푸코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마저 건강한 노동력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기획 곧 생물권력의 결과라고 본다. 그러므로 어쩌면 인격을 도구로 보는 시각을 문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조르주 바타이유의 잉여 인간(실제로는 잉여)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는 경제 제일주의 원칙과 효율성 극대화의 법칙으로 작동된다. 그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제도 밖으로 추방되는데, 죽음과 노화, 질병과 무분별한 욕망(그리고 예술) 같은 것들이고, 그것들에 붙여진 이름이 잉여다. 잉여는 제도에 의해 추방된 것인 만큼 잠재적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 혁명의 계기를 내장한다. 푸코라면 이처럼 잠재적인 혁명의 계기를 있으면서 없는 장소, 실재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에서 지워진(그러므로 삭제된) 장소, 그러므로 헤테로토피아라고 불렀을 것이다.

안창홍은 이처럼 벌거벗은 생명 그러므로 법으로마저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노숙자들, 시대와 역사의 희생양들, 정신병동에 격리 수용된 채 때로 그곳에서 죽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노동 현장에서 한갓 사물로 도구로 전락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밀려난 소위 잉여 인간과 같은, 작가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입체로 만든다. 이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이다. 작가는 이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들을 불러 모아 제의를 치러준다. 그림들(이름도 없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작은 입체(얼굴들)와 큰 입체 〈마스크〉들은 원래 49개 시리즈로 계획된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세상을 떠돌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는 49재의 천도 의식을 상징한 것이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파묻혀서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 다만 단말마와도 같은 고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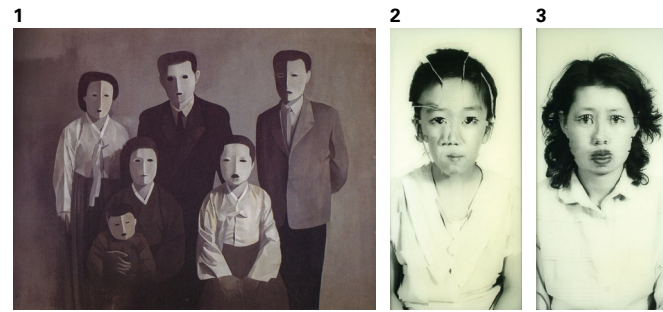
외침으로 아니면 침묵으로 육화된 으깨어진 물질 덩어리를 보는 것 같고, 그 자체로 장 포트리에의 〈인질〉 연작의 또 다른 버전을 보는 것도 같다. 실제로도 그들은 어찌면 시대에, 역사에, 그리고 현실에 붙잡힌 희생양이며 인질들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마스크들은 또한 어떤가. 〈이름도 없는〉 그리고 〈얼굴들〉 연작이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는 천도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마스크〉 연작은 현실원칙에 그 무게중심이 실린다. 현재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페르소나와 아이덴티티, 두 개의 인격을 산다. 주지하다시피 페르소나는 가면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왔는데, 사회적 주체며 제도적 주체를 의미한다. 사회와 제도의 욕망에 복무하는 주체며 가면 주체다. 그리고 그 가면 주체에 가려진 주체, 억압된 또 다른 주체가 아이덴티티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분열적인 삶을 산다. 문제는 그 두 주체 간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아득해지는 것에 있다.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가면이 내 얼굴이지 싶고, 나에게 가면과는 또 다른 주체(불교에서의 진아?)가 있었다는 사실이 까마득해질 수 있다. 작가는 〈마스크〉 연작을 빌려 이처럼 마침내 가면이 얼굴이 된 사람들의 초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생존전략과 차디찬 비정함만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도시이고 야만의 정글이다.**

- 안창홍

눈 먼 자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도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볼 때 그저 보지 않는다. 본다는



1. 가족사진,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130.3×162.2cm, 1980
2, 3. 부서진 얼굴, Epoxi sobre Collage Fotográfico, 110×52cm, 2006

것은 동시에 보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종합적 인식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사람의 눈은 그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감정과 욕망 그러므로 어찌면 그의 정체성과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이런 눈이 없다면, 그는 눈도 없고 동시에 정체성도 없다고 해도 될까. 눈을 뜨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또한 어떤가.

작가는 유독 가면 같은 얼굴과 무표정한 눈에 관심이 많고, 사실 그 관심은 작가의 초기작업에 소급될 만큼 오래되었다. 흑백 모노 톤의 화면에 가면 같은 얼굴들, 그리고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흰자위도 미동도 없이 시커먼 눈을 가진 일련의 초상들이 주는, 조금은 낯설고 그로테스크했던 인상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 시커먼 눈은 뭉개진 눈, 으깨어진 눈, 지워진 눈, 감긴 눈, 뚱파리가 바글대는 아마도 부패한 눈,



4. 마스크 2017-7, Técnica Mixta sobre FRP, 155×110×50cm, 2017
5. 이름도 없는 2019-2,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38×38cm, 2019

사이보그처럼 기계적인 눈, 안대처럼 봉대로 가린 눈(아마도 맹목을 상징하는), 동공이 없이 눈꺼풀만 있는 텅 빈 눈, 유리구슬이라도 박아 놓은 듯 무표정한 눈으로 변주되면서 그때그때 작가가 전하고 싶은 상황 논리를 눈이 대신 함축하게 했다.

그리고 여기에 눈 먼 자들이 있다. 〈마스크〉 연작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원칙에 방점이 찍힌 작업이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눈이 있음에도 사실상 눈이 없는, 그러므로 눈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 눈 먼 자들이 하나같이 유리구슬이라도 박아 놓은 듯 무표정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목과 얼굴에는 욕망, 눈물, 투쟁, 적자생존, 격투기, 戰士(전사)와 같은 현실원칙을 대변하는 문자들이

숨어있거나 드러나 있다. 아마도 인정도 감정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한, 전쟁과도 같은 현실에 대한 자의식을 표상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수행하는 바코드, 억압된 욕망이며 좌절된 욕망을 상징하는 꺾인 한쪽 날개,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가 죽은 날짜가 암호처럼 기록되거나 그려져 있다.

인상적인 점으로 열쇠 구멍이 눈에 들어온다. 〈마스크〉 연작에서는 이마 한가운데에, 그리고 〈눈 먼 자들〉 연작에서는 한쪽 눈에 열쇠 구멍이 있다. 무슨 구멍인가. 의식 아니면 무의식으로 통하는 관문인가? 문제는 그 열쇠 구멍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누가 만든 것인가. 제도가 만든 것이다. 제도가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여기서 다시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을 인용해 보면, 권력은 신체를 직접 구속하고 감금하고 고문하는 능동적인 방식에서 이후 점차 개별주체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감시체계를 발전시켜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경우의 범례를 교육으로 전수하고, 그렇게 전수된 규범을 도덕과 윤리와 같은 사회적 합의에 호소하는 식의 과정을 통해 퍼트린다. 그렇게 제도의 이념이 마침내 개별주체의 무의식에마져 파고든 지경에 이르면 제도의 감시 레이더는 더 이상 개인을 비출 필요가 없다. 저마다의 양심에 호소하는 식의 상호 간 감시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이마에 그리고 한쪽 눈에 뚫린 열쇠 구멍은 바로 그런, 이념을 주입하고 전수하는 제도의 기획을 표상한다.

그렇게 작가는 〈눈 먼 자들〉 연작을 통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도 없고



1. 화가의 똥
Acrílico sobre Tela, 194×97cm, 1999

정체성(그러므로 자기)도 없는 사람들, 그 자체가 생존전략이기도 한 무표정한 사람들(표정이나 감정을 들키는 순간은 곧 죽음이다)의 초상을 그려놓고 있었다.

좋은 작품이란 쉽지만 깊다. 무한대의 깊이와 무게가 있어야 한다. 예술이라는 것은 먼 훗날 그 작가의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해볼 수 있어야 한다. 작품 속에 시대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빛과 그늘의 틈, 욕망과 절제의 틈, 물질과 정신의 틈, 선과 악의 틈, 이곳과 저곳의 틈, 이 세상의 모든 상반된 가치의 경계. 예술은 규범과 단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모호함과 불안함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야 더욱 아름답다.

- 안창홍

이외에도 작가는 각 〈화가의 손〉과 〈화가의 심장〉 같은 예술가의 자의식을 반영한 작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예술가의 자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관련 작업으로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세상을 향해 똥을 누는 〈화가의 똥〉과 그 의미가 통한다. 예술가의 똥을 캔에 담아 전시하고 판매한 피에르 만조니의 또 다른 〈예술가의 똥〉과 그 자의식을 비교해봐도 좋을 것이다(만조니는 예술가의 숨을 전시하기도 했다).

작가는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의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돌파한 작가 중 한 사람이다. 당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형식의 완성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다. 이념에 편중되다 보면 형식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일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작가는 이념 전달에 성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형식적 완성도를 기할 수 있었다. 그것도 가장 개성적인 방법으로

이념과 형식이 상호 길항하고 부침하는, 그리고 이로부터 고유의 긴장감과 함께 강렬한 파토스를 자아내는 자기만의 회화적 지평을 열 수 있었다. 이념에 바탕을 둔 시대정신과 감각에 바탕을 둔 시대 감정이 조화를 이룬 자기만의 형식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

작년 겨울(2020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일) 사비나미술관에서 국내 최초로 열린 에바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 특별기획전에 대한 인상이 지금도 선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와중에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 인원을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주최한 미술관 측도 깜짝 놀랄 만큼 수많은 인파가 전시를 관람했다고 한다. 생전 작가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났던 전쟁과 폭력, 정치와 권력의 만행에 철저히 무기력했던 사람들, 이름도 존재도 없이 스러져간 사람들을 그린 작가의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비록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도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픈 기억과 연대가 주는 위로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간 실존을 위협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바로 이처럼 시공을 넘어서까지 감동을 주는 것이야말로 예술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예술이 갖는 힘이다.

이번 전시는 그 답방 형식으로 열리는 전시다. 한국 에바도르 양국이 1962년 첫 수교를 시작한 이후 내년(2022)이면 꼭 60주년이 된다. 그런 만큼 양국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이번 전시가 향후 양국 간 문화교류를 위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국가적 차원의 기념비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전시행사인 만큼 양국의 정치 행정 외교 당사자와 미술관



2. 화가의 심장2
Acrílico sobre FRP Aluminium, 138×139×150cm, 2019
3. 화가의 손 1, Acrílico sobre FRP, 300×220×45cm, 2019

관계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이번 전시가 성사될 수 있었다. 에바도르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인 과야사민 미술관 최초로 한국 작가 개인전을 개최한다는 점이나, 특히 전시가 열리는 또 다른 공간인 인류의 예배당은 2009년 프란시스코 고야 이후 처음으로 외국 작가 작품을 전시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예술에서는 시각이 결정적이다. 세계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와 입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과야사민과 안창홍 두 작가는 세계를 향한 분노와 존재에 대한 연민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분노와 연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존재에 대한 연민이야말로 예술에서 가장 결정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두 작가는 비록 서로 본 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동지 의식으로 결합 돼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ADJUNTO A LA OBRA

“La Moda de los Fantasma”

Ahn ChangHong

“Sea una alucinación o un fantasma”

Todo capital fluye hacia la ciudad. El capital que desemboca en las ciudades se comercializa con casi todas las cosas y con todos los medios que generan lucro. El capitalista levanta pisos en su torre de Babel con mano de obra barata y con la riqueza que ha explotado mediante negocios injustos. En este mundo ¿habría algo imposible teniendo el poderío del capital monopolizado y el respaldo de las autoridades políticas?

Las personas que viven en la ciudad -espacio donde la sobreproducción y el consumo se consideran virtudes- se van extenuando y se sepultan bajo el placer, la vanidad y la codicia con el paso del tiempo. En aquellos rincones secretos de la gran ciudad, el instinto humano y la lengua rojiza del salvajismo lengüetean sin parar y una sombra sospechosa danza sin cesar.

Rebosan los manjares, pero solo son la abundancia de los privilegiados. Y los indigentes viven cada vez más una vida miserable. Las comidas en exceso no terminan en las gargantas enflaquecidas de los hambrientos, aun cuando se desechan con el pretexto de la fecha de vencimiento. En un lugar aislado, fuera de los deslumbrantes centros comerciales, un mendigo trata de saciar su hambre revolviendo tachos y termina despidiéndose de este mundo por no poder soportar el

hambre y el frío.
¡Sí, esto ocurre en esta ciudad tan opulenta!
No tiene sentido.
Pero sigue siendo una realidad innegable.

En un contexto similar, para conseguir mejor rendimiento de mano de obra, la clase obrera debe apretarse más el cinturón en medio de la pobreza y de la indigencia; este es el credo de ellos. Aun así, el mundo sigue rodando sin mayores problemas. Este es el mundo en el que vivimos. Ausencia de interés, a excepción de los propios intereses, ciegos, es la forma de nuestras vidas.

Cada cual finge ser culto y vive con una sonrisa afable en los labios, pero detrás de ese rostro oculta la arrogancia y el desprecio, mientras su contraparte, esconde la indignación y las lágrimas en su falsa sonrisa de negocios para sobrevivir. Ese espacio donde solo existen las tácticas de supervivencia y la cruda frialdad, ese lugar es la ciudad. Una selva salvaje que a todos nos obliga estar en una cadena, donde los débiles caen como presas de los más fuertes. En ese lugar no existe ningún orden divino que mantenga el mundo en su estado natural. No hay mecanismo que frene la acumulación excesiva, los ocios y la matanza, y aunque existiese, sería inútil. La ciudad, donde las llamas de la codicia y el deseo no se apagan y siguen agitando, es una zona libre del despliegue del placer y un tren fuera de control y sin freno que se dirige hacia la muerte.

Al caminar por la selva de concreto de los centros uno ve las hileras de todo tipo de carteles publicitarios, y los maniquís en la vitrina seducen a las personas que pasan con su cuerpazo y sus prendas lujosas. Susurran a que abran sus billeteras para comprar sueños inalcanzables. “¡Vamos todos, luzcan como yo lo hago, tú también puedes ser el protagonista!” Las personas, incluso con sus pasos apurados, echan un vistazo con sentimientos de inferioridad y envidia, y observan las vitrinas llamativas con celos en los ojos. También me incorporo

y formo parte de esa multitud. En ella, por supuesto, pesco las ideas que inspiran mis obras desde la perspectiva de un espectador, pero también disfruto del placer visual. A veces incluso compro ropas elegantes.

La moda es el esplendor de la civilización humana, es la figura que simboliza a una era y es la flor de la cultura urbana. Especialmente en el capitalismo, la moda de la alta sociedad es símbolo de la riqueza y del estatus social; también actúa como elemento que da viveza a la ciudad.

La moda funciona como una cortina que sirve para ocultar o exponer aún más los deseos y las verdaderas intenciones de las personas.
para las especulaciones de los negocios,
para los acuerdos lujuriosos y las seducciones,
para fingir tener más clase,
para disimular ser más serio,
para lucir más sensual,
para mostrarse más autoritario,
para asustar al oponente,
para la apariencia visual del estatus.

Todos los estilos de moda que bordan las calles de la ciudad juegan un papel muy importante en adornar y embellecer a uno mismo para alcanzar los propósitos personales de cada cual. De serlo así, la moda es tan encantadora que no es nada fácil resistir su tentación.

Un país civilizado, o cualquier país, cuenta con su distrito número uno de la moda donde, bajo las resplandecientes luces de la ciudad, palpitan los instintos naturales más sensitivos. En ese lugar, cada uno se expone, se ostenta y se alaba a sí mismo llevando prendas y arreglos que quedan bien con su personalidad. Al caminar por esas calles, a gente como yo sensible de los sentidos, me llena la satisfacción visual y me quedo fascinado al observar el estilo de las prendas elegantes que visten las personas con buen gusto.

Y de repente, todo esto parece irreal, me cautiva una alucinación y parece que estoy caminando por una calle ficticia. Me sumerjo en una ilusión óptica, y como en una calle de fantasmas, desaparecen las personas y el lugar se llena de pedazos de esteras de paja espléndidamente adornados.
¡Sí, es eso! La calle de los fantasmas, el desfile de los fantasmas.

A horas muy tardías o tempranas, todas las personas que abarrotaban las calles se han marchado. ¡Quedaron vacías! La calle de la ciudad sin la multitud que lo llenaba llega a ser el “vacío” en sí. Se siente aún más profundo cuando las polillas atraídas por la luz aletean pegadas en la vitrina y hacen volar sus escamas. Ese vacío, hasta da escalofrío, cuando me paro cerca y escucho el sonido que suena al romperse las alas chocando contra el cristal. Una ciudad vacía donde solo fluye la soledad como agua del río.
¿Qué otra cosa podría ser sino una ciudad de los fantasmas?

“Ciudad de los fantasmas”
Ya hace tiempo que planeaba dibujar una ciudad de los fantasmas; y mi obra en serie “Moda de los Fantasma”, que empecé a dibujar en agosto del año pasado, es el inicio de mis primeros trazos sobre los ‘fantasmas’.

En 1979, en la serie “Después del Ser Humano (After Human Being)”, he presentado algunos fantasmas con la misma figura que la actual en medio de una ciudad grisácea. Y ya hace 42 años que decidí que algún día, cuando el mundo se vuelva más desesperante, trabajaría con fantasmas en primer plano. Esta obra comienza a partir de la intuición de un pintor, y la misma reflejará cuán extenuado se han vuelto nuestras vidas con el paso del tiempo. Sea así o no, ¿habría alguna forma de frenar el tren de la civilización que está fuera de control y corre al borde de la destrucción?

유령패션(LA MODA DE LOS FANTASMAS)에 부쳐

안창홍

‘허깨비이거나 유령이거나’

모든 자본은 도시로 몰려든다. 도시로 몰려든 자본은 이익이 창출되는 거의 모든 것들과 모든 수단으로 거래한다. 자본가는 대부분 값싼 노동력과 부당 거래로 착취한 부로 바벨탑을 쌓는다.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독점자본의 위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게 있거나 한 것일까?
과잉생산과 소비가 미덕인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지고 쾌락과 허영과 탐욕에 매몰된다. 거대 도시의 은밀한 곳에서는 늘 인간 본성과 야만의 붉은 혀가 날름대고 수상쩍은 그림자가 춤을 춘다. 먹거리는 넘쳐나지만 선택받은 자들만의 풍요일 뿐. 빈곤한 자들은 더욱 더 궁핍한 삶을 산다. 넘쳐나는 먹거리들이 유통기간을 핑계로 폐기처분이 되더라도 굶주린 자들의 야윈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휘황찬란한 백화점 밖 후미진 곳엔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달래던 걸인이 굶주림과 냉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결별한다. 이 풍요의 도시에서 이것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그러나 엄연한 사실 아닌가.

비슷한 맥락에서 노동력의 능률을 위해선 노동 계급들이 궁핍과 결핍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신념이다. 그래도 세상은 별 탈 없이 돌아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자신의 이익 외에는 관심 두지 않는, 눈먼 자들, 우리들 삶의 형태이다.

저마다 교양 있는 척 상냥한 미소를 입가에 달고 살지만 그 미소들 속엔 드러나지 않은 거만함과 멸시가 숨겨져 있고, 반대의 경우는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의 미소와 비굴함과 눈물이 숨겨져 있다. 생존전략과 차디찬 비정함만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도시이고 약육강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야만의 정글이다. 이곳엔 자연 세계를 지탱하는 신성한 질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잉 축적이나 취미, 살육 등을 제동걸 장치도 없거나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탐욕과 욕망의 꺼지지 않는 불꽃이 일렁이는 도시는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쾌락의 해방구이자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다.

온갖 광고판들이 즐비한 변화가 빌딩 숲 속을 걷다 보면 쇼윈도에는 고급진 옷을 걸친 짹짹 마네킹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도달할 수 없는 꿈을 향해 지갑을 열도록 속삭인다. “자, 모두 나처럼 걸쳐 봐!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은 바쁜 걸음 중에도 열패감과 선망의 시선을 던지며 화려한 쇼윈도를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본다. 나 또한 그 무리 속에 섞여 든다. 그 속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낚아 올리는 작품 아이디어도 물론이지만 시각적 즐거움 또한 즐기는 것이다. 더러는 폼 나는 옷을 사 입기도 한다. 패션은 인류 문명의 꽃이고 그 시대의 상징물이자 도시문화의 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상류사회의 패션은 부와 신분의 상징이며 도시를 활기차게 만드는 인자로 작용하기도 한다. 패션은 사람들의 욕망과 본심을 가려주거나 드러내어 돋보이게 하는 커튼 역할을 한다.

사업적 비즈니스를 위해,
음탕한 거래와 유혹을 위해,
더욱 품격 있게 보이기 위해,
더욱 엄숙하게 보이기 위해,
더욱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
더욱 권위적으로 보이기 위해,
상대를 겁 먹이기 위해,
신분의 시각적 허울을 위해,

도시의 거리를 수놓는 온갖 종류의 패션들이 개개인 저마다의 목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만큼 패션은 매혹적이고 유혹을 뿌리치기도 쉽지 않다.
문명국은 어느 나라이든 도시엔 화려한 불빛 아래 감각적 본성이 출렁이는 패션 1번가가 있다. 그곳엔 저마다의

개성에 걸맞은 치장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며 뽐내고 과시한다. 나같이 감각에 민감한 사람은 그런 곳을 거닐다 보면 멋쟁이들의 옷맵시에 매료되어 시각적 충족감에 젖어 든다.
그러다가도 느닷없이 현실이 아닌 허구의 길을 걷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힌다. 마치 유령들의 거리처럼 사람들의 존재는 사라지고 화려하게 치장된 거적매기들만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듯한 착시현상에 빠져든다. 그렇다 유령의 거리, 유령들의 패션쇼!
아주 늦거나 아주 이른 시간 길을 가득 메우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인파로 채워지지 않은 도시의 거리는 ‘공허’ 그 자체이다. 불빛을 찾아 날아든 나방이들이라도 쇼윈도에 달라붙어 비늘 가루를 날리며 퍼드득덜 땀 더욱 그렇다. 가까이에서 서서 유리창에 부딪치며 날개빠 부러지는 소리라도 들을 땀 너무 공허해서 소름이 돋는다. 적막감만 강물처럼 흐르는 텅 빈 도시. 이것이 유령의 도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유령의 도시’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령의 도시를 그릴 계획이었고, 지난해 8월부터 그리기 시작한 ‘유령패션’ 연작이 ‘유령’ 그리기의 첫 시작이다.
1979년 ‘인간 이후’ 연작에서 회색빛 도시에 지금과 똑같은 형상의 몇몇 유령을 등장시키면서부터 언젠가 세상이 좀 더 절박해지면 유령만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작업을 시작하리라 마음먹은 지 42년째.
한 화가의 직관으로 시작하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왔는 지가 방증될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멸망의 벼랑 끝으로 내달려가는 문명의 폭주 열차를 멈춰 세울 방도는 없는 것일까?

LA MODA DE LOS FANTASMAS

유령패션

La serie La Moda de los Fantasmas combina colores resplandecientes e imágenes modernas, y es el trabajo más reciente de Ahn ChangHong que se dará a conocer por primera vez al mundo en la exhibición en Ecuador. Ahn ChangHong se sintió profundamente conmovido por la presentación de muestras de Oswaldo Guayasamín que tuvo lugar en el Museo SABINA de Corea en el año 2020. Entonces, cuando se había decidido su exhibición individual en Ecuador, trabajó intensamente para completar esta serie. Quiso demostrar su respeto por Guayasamín presentando su producción más reciente por primera vez en Ecuador, asimismo el artista atribuyó un significado muy especial a esta exhibición de intercambio.

Las obras, pintadas con óleo sobre un lienzo de tamaño similar a la de una persona real, tuvieron sus inicios en un tamaño muy pequeño. Ahn ChangHong había comenzado a dibujarlas sobre la pantalla de su teléfono inteligente usando el lápiz montado en el dispositivo. Luego los imprimió a través de la impresión digital para exhibirlos. De esta manera, crea un nuevo tramo del arte de ‘grabado digital’, algo que no existía en el pasado. Yendo un paso más, vuelve a crear las imágenes, digitales nacidas de su smartphone, utilizando el medio más tradicional del arte, que es la pintura. Es el encuentro entre el pasado y el presente, y de la tecnología con el arte.

Ahn ChangHong recopiló diversas imágenes de espléndidos modelos que andan flotando en internet. Todas sus poses son multiforme y variopinta. Los modelos y sus prendas se expresan de formas variadas, tal cual son diversas las formas de la vida humana. Un punto esencial de las obras es que se muestran sin piel. La cabeza, el rostro, las manos y los pies de los personajes están borradas. En otras palabras, hizo que desapareciera la forma real del cuerpo humano, dejando solo la prenda que es solo la envoltura de la figura. Aquí está la razón del porqué titula a la serie La Moda de los Fantasmas.

La situación de la pandemia a causa de COVID-19, nos demanda autorreflexión e introspección sobre los humanos codiciosos y el capitalismo impregnado de manchas de deseos avarientos. La Moda de los Fantasmas de Ahn ChangHong acusa a la civilización humana del siglo XXI, que con una apariencia espléndida, pero con un interno totalmente vacío, ha perseguido la omnipotencia del materialismo. Guayasamín ha expresado su conciencia temática sobre la historia del sufrimiento de Ecuador y su gente del siglo XX, y también sobre la humanidad. En la misma línea, el artista coreano Ahn ChangHong interpreta los problemas que enfrenta la humanidad del siglo XXI, de una forma singular y diferente a Guayasamín.

화려한 컬러와 현대적인 이미지가 어우러진 신작 〈유령패션〉 시리즈는 이번 전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안창홍은 지난해, 2020년 한국의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렸던 〈오스왈도 과야사민 특별기획전〉 전시를 보고 큰 감흥을 받았다. 이후 에콰도르에서 자신의 개인전 개최가 결정된 직후부터 이 시리즈를 완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작업에 임했다. 가장 최근에 제작한 신작을 에콰도르에 선보임으로써 과야사민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이번 교류전의 의미를 각별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캔버스에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의 출발은 아주 작은 크기에서 시작됐다. 안창홍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펜을 이용해 스마트폰 화면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디지털 프린트로 출력해서 전시를 했다. 과거에는 없던 ‘디지털펜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창조한 디지털 이미지를 가장 전통적인 회화 방식으로 다시 창조했다. 과거와 현대의 만남,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안창홍은 인터넷에 떠도는 화려한 패션모델의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했다.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은 유명 디자이너의 옷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도 있다. 또한 모델이 취한 포즈도 각양각색이다. 다소곳한 정면 컷도 있지만 과장되고 멋들어진 포즈를 취한 모델도 있다.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다양하듯 모델과 의상도 그만큼 다양하게 표현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델-인물의 머리-얼굴과 손, 발과 같은 피부가 지워졌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실제 인체의 형상은 사라지고 형상의 껍데기인 옷만 남겨 놓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신체와 영혼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유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시리즈의 제목이 〈유령패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탐욕적인 인간과 욕망에 찌든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안창홍의 〈유령패션〉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한 21세기 인류문명에 대한 고발인 셈이다.

과야사민은 20세기 에콰도르가 겪은 역사적 아픔과 인간에 대한 주제의식을 표현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작가 안창홍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과야사민과는 다른 고유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La Moda de los Fantasma 2021'1
유령패션 2021'1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2
유령패션 2021'2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3
유령패션 2021'3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4
유령패션 2021'4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32×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5
유령패션 2021'5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6
유령패션 2021'6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omas 2021'7
유령패션 2021'7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32×4cm
2021



La Moda de los Fantomas 2021'8
유령패션 2021'8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9
유령패션 2021'9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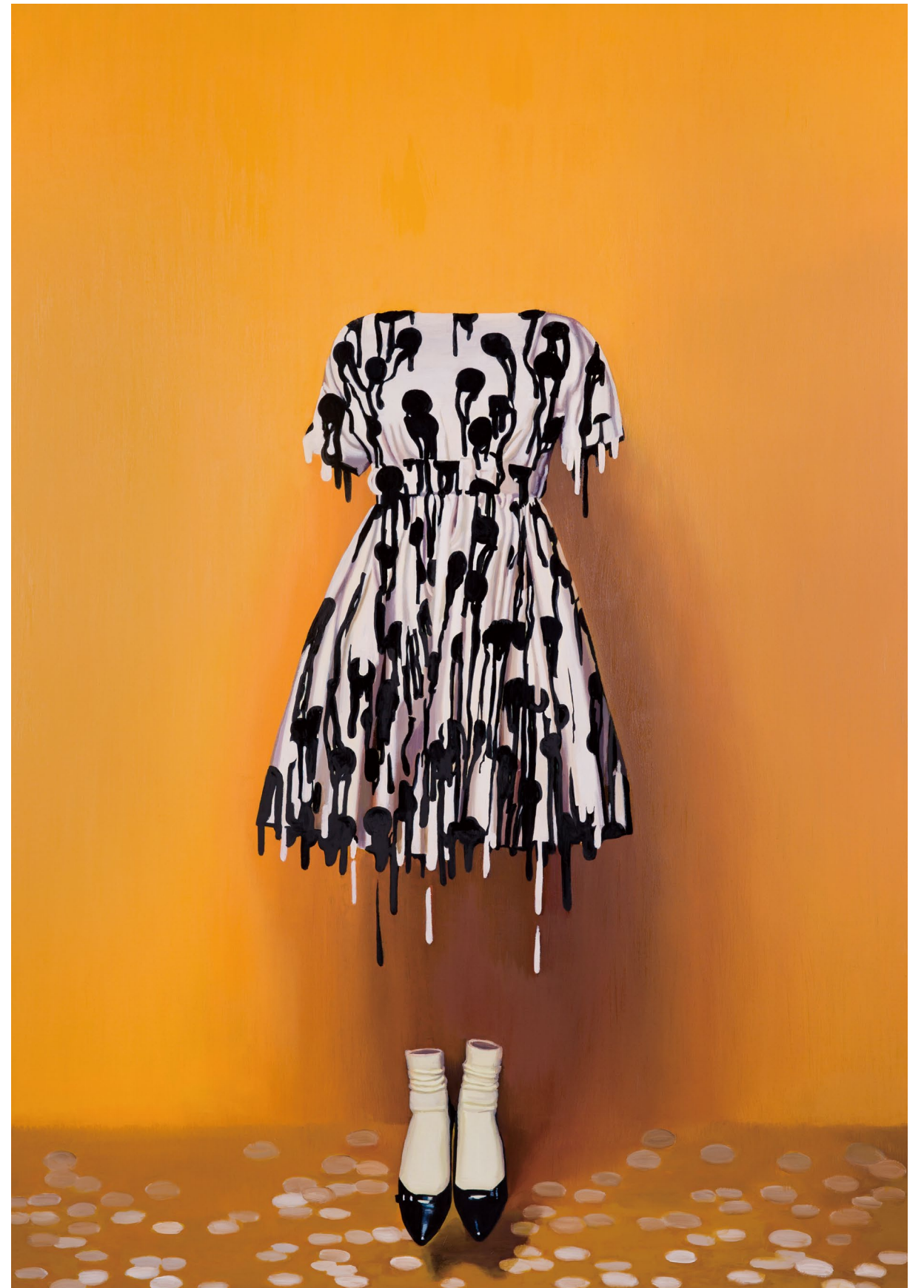
La Moda de los Fantasmas 2021'10
유령패션 2021'10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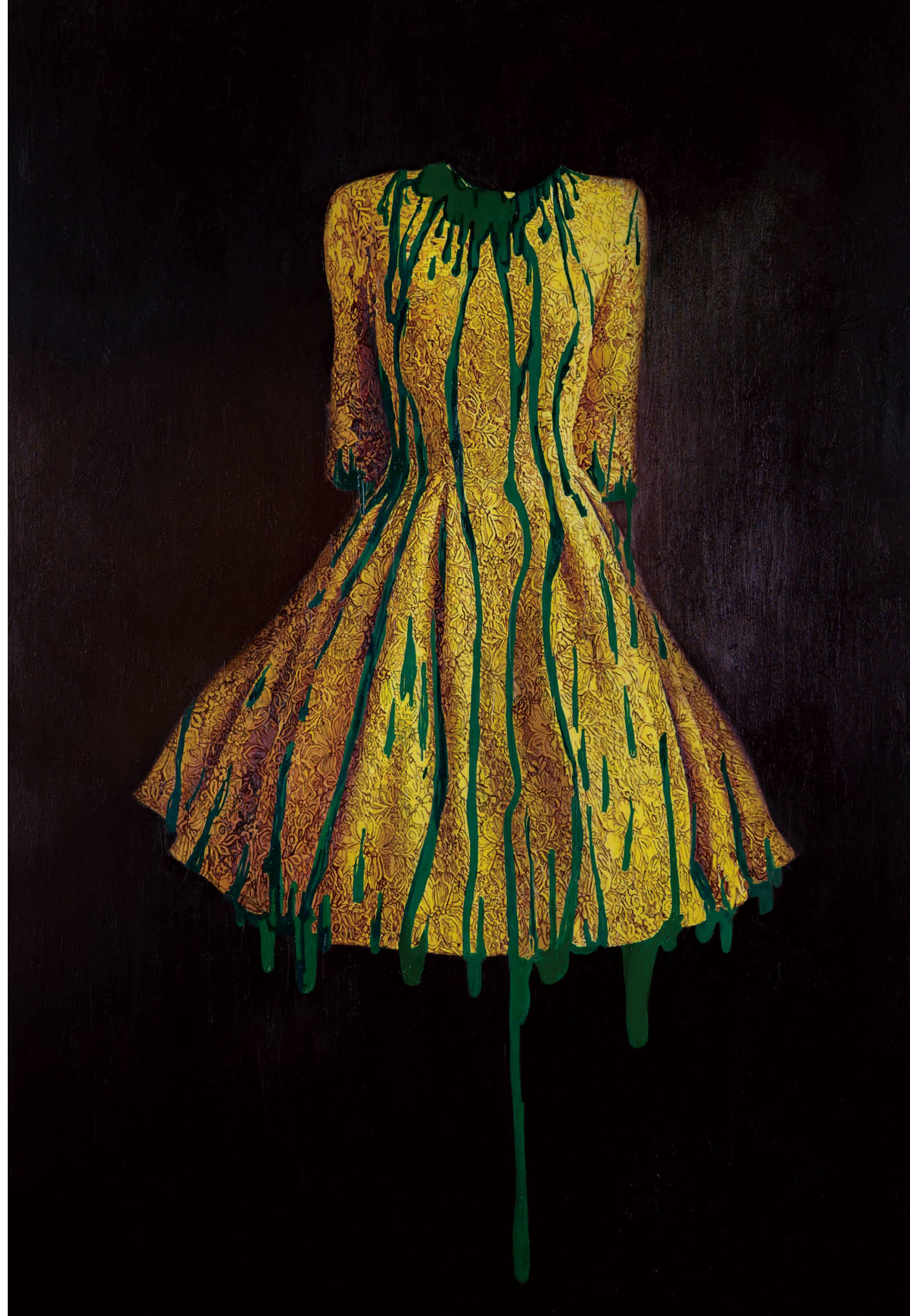
La Moda de los Fantasmas 2021'11
유령패션 2021'11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12
유령패션 2021'12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13
유령패션 2021'13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omas 2021'14
유령패션 2021'14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15
유령패션 2021'15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16
유령패션 2021'16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omas 2021'17
유령패션 2021'17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18
유령패션 2021'18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19
유령패션 2021'19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La Moda de los Fantasma 2021'21
유령패션 2021'21

Pintura al óleo sobre Lienzo
캔버스에 유화
162×113×4cm
2021



CEGUEIRA

눈 먼 자들

CEGUEIRA

Al igual que Guayasamín, las obras de Ahn ChangHong tienen una fuerte connotación del interés y el afecto del artista hacia los ‘humanos’. En esta serie, el ‘rostro’ simboliza al ‘humano’. Las expresiones faciales que se observan en común en las obras de ambos artistas son las diversas emociones del ser humano, tales como el nacimiento, la vejez, la enfermedad, la muerte, el sufrimiento la desesperación, la esperanza y el anhelo.

El filósofo francés Gilles Deleuze distingue la ‘cabeza’ del ‘rostro’. Por ejemplo, un animal tiene cabeza, pero no un rostro. La cabeza no tiene una expresión a diferencia del rostro. En otras palabras, el rostro es la parte del cuerpo que contiene las expresiones. Por supuesto no solamente el rostro, sino las otras partes también pueden tener expresiones; las manos ásperas del obrero o campesino que ha trabajado duro por toda su vida, los hombros deprimidos por fracasos y frustraciones, la espalda de una mujer sollozando con lágrimas, la imagen de quien agita la mano por la alegría del reencuentro. Todas son expresiones del cuerpo. Sin embargo, el rostro -con los ojos, la nariz y la boca- es la que mejor expresa las emociones humanas mediante las expresiones faciales. Y de las mencionadas, los ojos son las más importantes. La expresión de los ojos puede tener diversas interpretaciones.

En este sentido la Ceguera, obra

tridimensional de gran tamaño, que será exhibida en “La capilla del hombre” cobra un sentido muy especial. Deberíamos ver detenidamente los ojos en la cabeza y en el rostro de los personajes creados en esculturas tridimensionales. Aunque tienen los ojos firmemente abiertos, el título de la obra es todo lo contrario, la “Ceguera”, es una metáfora paradójica.

Cada una de las figuras de los personajes nos cuentan una historia diferente. Hay relatos muy íntimos, historias de sucesos sociales muy conocidos, y también rememoración de un accidente. Ahn ChangHong expresa a estas vidas complicadas y entrelazadas a través de sus esculturas con figura de rostros humanos pintados en diversos colores. La figura simboliza la situación contradictoria e irónica de una “persona que puede ver bien, pero que aún es ciega”.

Ahn ChangHong es un artista que ha trabajado principalmente en pinturas durante toda su carrera. Que haya creado esculturas tridimensionales de gran tamaño, e incluso en varias piezas, fue por su ferviente deseo de transmitir su mensaje y su conciencia temática.

Las obras tridimensionales de gran tamaño de Ahn ChangHong expuestas en la “La capilla del hombre”, patrimonio cultural importante de Ecuador, no deja de ser una oportunidad sumamente especial.

과야사민처럼 안창홍 작품에도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짙게 드러난다. 여기서 ‘인간’은 ‘얼굴’로 상징된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얼굴 표정은 생로병사, 고통과 절망, 희망과 염원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는 ‘머리’와 ‘얼굴’을 다른 것으로 구별했다. 예컨대 동물에게도 머리는 있지만 그것이 얼굴은 아니다. 머리는 얼굴과 달리 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얼굴이란 표정을 지닌 신체다. 물론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도 표정을 가질 수 있다. 평생 고된 일을 한 노동자나 농민의 거친 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축 처진 어깨, 눈물 흘리며 흐느끼는 여인의 뒷모습, 반갑게 만날때 손을 흔드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이 신체의 표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눈, 코, 입이 모여있는 얼굴은 인간의 감정을 표정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신체다. 이 중에서도 눈이 가장 중요하다. 눈이 지닌 표정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류의 예배당에 전시되는 대형 입체작품 <눈 먼 자들>은 아주 특별하다. 입체조각으로 만들어진

인물의 머리와 얼굴에서 특히 눈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있지만 작품 제목은 반대로 <눈 먼 자들>이다. 역설적인 은유이다. 이 인물조각은 하나하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연도 있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안창홍은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킨 인간의 삶을 다양한 컬러로 채색된 인간의 얼굴모양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인물은 마치 ‘눈 뜬 장님’처럼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상징한다.

평생 그림을 주로 그려온 안창홍 작가가 이렇게 대형 입체조각을, 그것도 여러 점 제작한 것은 그만큼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와 주제의식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인류의 예배당’에서 안창홍의 대형입체조각 작품이 전시되는 일은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Ceguera 2016-3
눈 먼 자들 2016-3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6





Ceguera 2016-1
눈 먼 자들 2016-1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6



Ceguera 2016-2
눈 먼 자들 2016-2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6



Ceguera 2016-4
눈 먼 자들 2016-4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6



Ceguera 2016-5
눈 먼 자들 2016-5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6



Ceguera 2016-6
눈 먼 자들 2016-6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6



Ceguera 2017-1
눈 먼 자들 2017-1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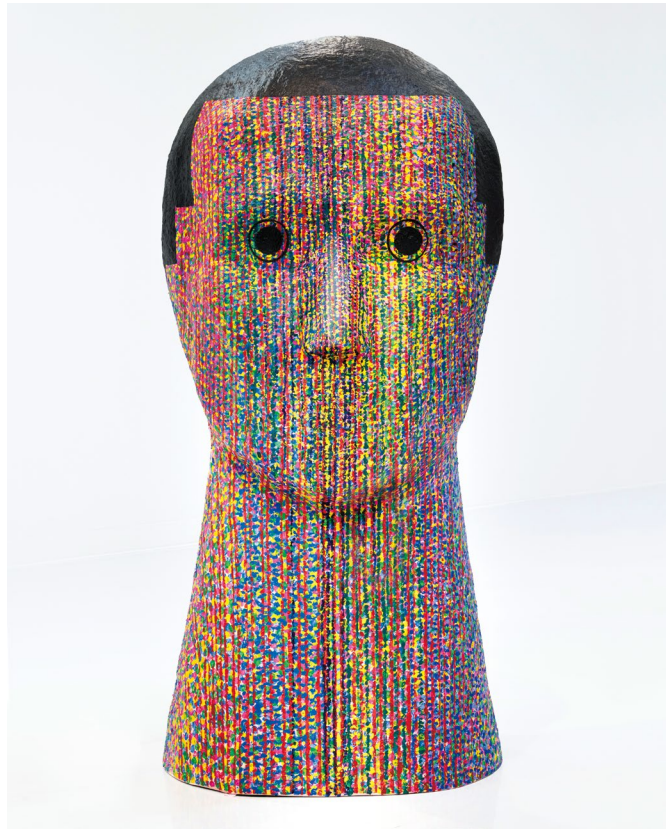
Ceguera 2019-1
눈 먼 자들 2019-1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2
눈 먼 자들 2019-2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3
눈 먼 자들 2019-3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4
눈 먼 자들 2019-4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5
눈 먼 자들 2019-5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6
눈 먼 자들 2019-6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7
눈 먼 자들 2019-7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8
눈 먼 자들 2019-8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9
눈 먼 자들 2019-9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Ceguera 2019-10
눈 먼 자들 2019-10

Acrílico sobre Resina Sintética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
 213×117×110cm
 2019

POSTROS

오
리
지

POSTROS

La serie Rostros hace que la mirada del público se acerque hacia las obras. Está bien contemplar La Moda de los Fantasmas y la Ceguera desde un lugar relativamente distante, pero los Rostros deberían observar los detalles admirándolos desde cerca. Se siente el aliento del artista Ahn ChangHong en las obras expresadas con la textura ruda del cemento y las líneas atrevidas. Si bien el artista ha venido tratando temas de gran peso como la humanidad, la historia, y la sociedad, en ocasiones como en estas obras, expresa su afecto y cariño por personajes comunes y familiares. Los inspiradores del trabajo Rostros no son grandes hombres, héroes o personajes históricos. Sus protagonistas son la gente ordinaria del pueblo que encontramos fácilmente en nuestras vidas cotidianas, como el vecino, el amigo, la familia, el hermano, etc. Ahn ChangHong creó estas obras pensando en esos rostros.

Porque de hecho, el ciudadano común y ordinario es el que hace historia y todas son vidas valiosas, porque cada cual hace lo mejor que puede con sus vidas. Para crear estas obras, el artista hizo un surco en la tierra del patio delantero su taller, vertió cemento y luego de esperar a que se endurezcan, desenterró las piezas cuidadosamente. La expresión facial cruda y natural con la textura áspera de la tierra, hace que parezcan unas reliquias antiguas enterradas por mucho tiempo. Corea y Ecuador tienen largos años de historia y tradición. La serie Rostros, es como un viaje en una máquina de tiempo que atraviesa el tiempo y el espacio de la tradición y la modernidad. A la vez, esta serie conmemora y anhela los valiosos intercambios entre la historia y el individuo, entre el Occidente y Oriente, y entre Ecuador y Corea, y sus pueblos.

〈얼굴들〉시리즈는 관객들의 시선을 작품 가까이 끌어당긴다. 〈유령패션〉과 〈눈 먼 자들〉은 비교적 멀리 떨어져서 봐도 괜찮지만, 〈얼굴들〉은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디테일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거친 시멘트 질감과 과감한 선으로 표현된 작품에서 안창홍 작가의 숨결이 느껴질 것이다. 인간과 역사, 사회라는 큰 주제를 다뤄온 안창홍이지만, 가끔은 이 작품처럼 아주 사소하고 친근한 인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얼굴들〉시리즈의 모델이 된 인물은 위인이나 영웅,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친구, 가족, 형제 등 평소에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밀한 보통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안창홍은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만들었다. 평범한

소시민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고 각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안창홍은 작업실 앞마당 흙바닥에 흙을 파내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굳힌 다음 조심스럽게 그 덩어리를 캐내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흙이 지닌 거친 질감과 자연스럽게 투박한 얼굴표정은 마치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있던 고대유물처럼 보인다. 한국이나 에콰도르는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녔다. 〈얼굴들〉시리즈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과 공간을 오가는 동시에 역사와 개인, 서양과 동양, 에콰도르와 한국(인)의 소중한 교류를 기념하고 염원한다.

Rostros 2018-22
얼굴들 2018-22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Alrededor de 30×20×10cm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25
얼굴들 2018-25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Alrededor de 30×20×10cm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1
얼굴들 2018-1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Alrededor de 30×20×10cm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7 ▲
얼굴들 2018-7

▲ Rostros 2018-8
얼굴들 2018-8

Rostros 2018-3 ▼
얼굴들 2018-3

▼ Rostros 2018-4
얼굴들 2018-4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Cada uno alrededor de 30×20×10cm
각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2
얼굴들 2018-2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Alrededor de 30×20×10cm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5 ▲
얼굴들 2018-5

▲ Rostros 2018-11
얼굴들 2018-11

Rostros 2018-10 ▼
얼굴들 2018-10

▼ Rostros 2018-13
얼굴들 2018-13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Cada uno alrededor de 30×20×10cm
각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12
얼굴들 2018-12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Alrededor de 30×20×10cm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16 ▲
얼굴들 2018-16

▲ Rostros 2018-19
얼굴들 2018-19

Rostros 2018-20 ▼
얼굴들 2018-20

▼ Rostros 2018-9
얼굴들 2018-9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Cada uno alrededor de 30×20×10cm
각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15
얼굴들 2018-15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Alrededor de 30×20×10cm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24 ▲
얼굴들 2018-24

▲ Rostros 2018-26
얼굴들 2018-26

Rostros 2018-28 ▼
얼굴들 2018-28

▼ Rostros 2018-45
얼굴들 2018-45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Cada uno alrededor de 30×20×10cm
각 30×20×10cm 내외
2018



Rostros 2018-44
얼굴들 2018-44

Técnica Mixta sobre Cemento, Yeso
시멘트, 석고에 혼합매체
Alrededor de 30×20×10cm
30×20×10cm 내외
2018

DIBUJOS DIGIT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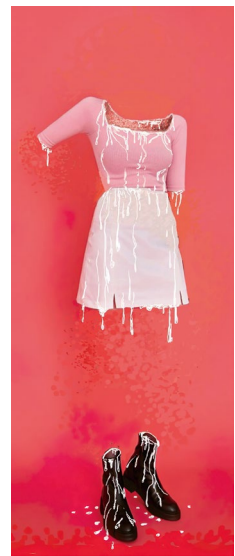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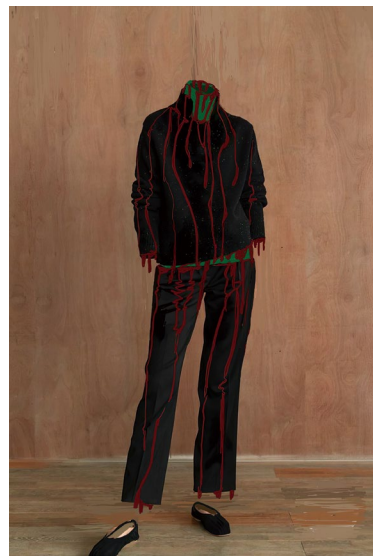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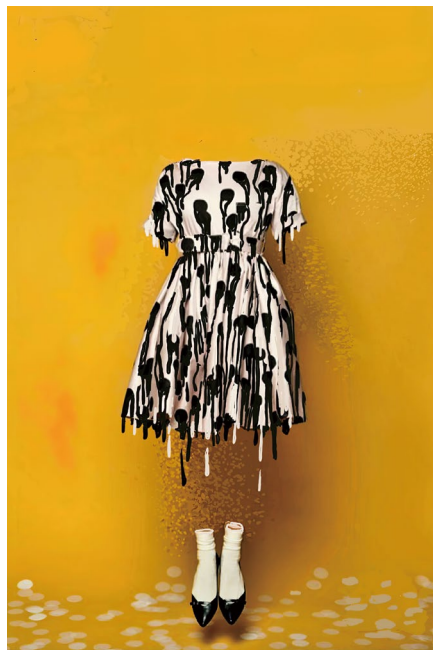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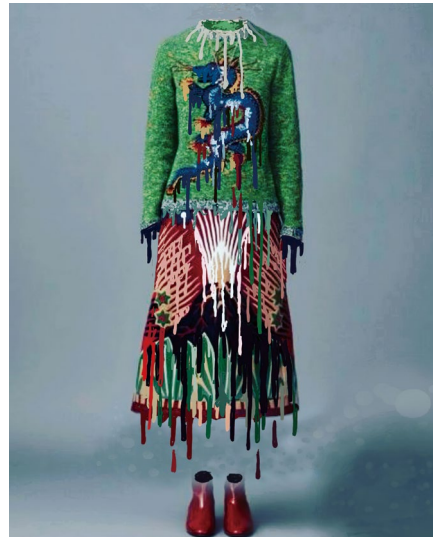
디지털 펜화

이제부터
디지털 펜화
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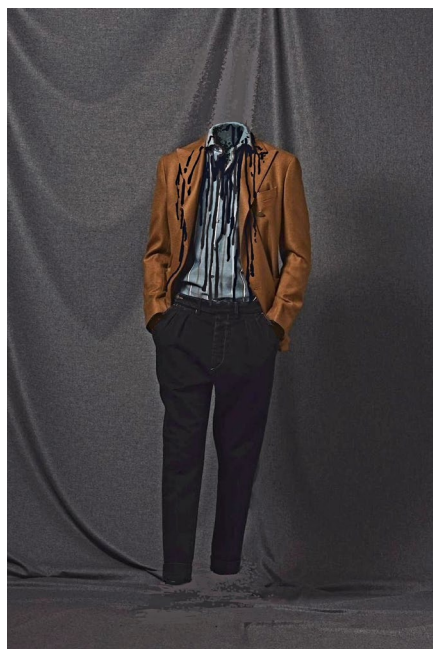
이제부터
디지털 펜화
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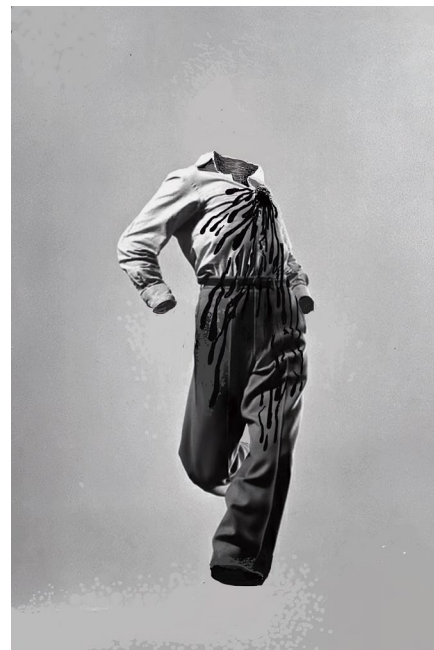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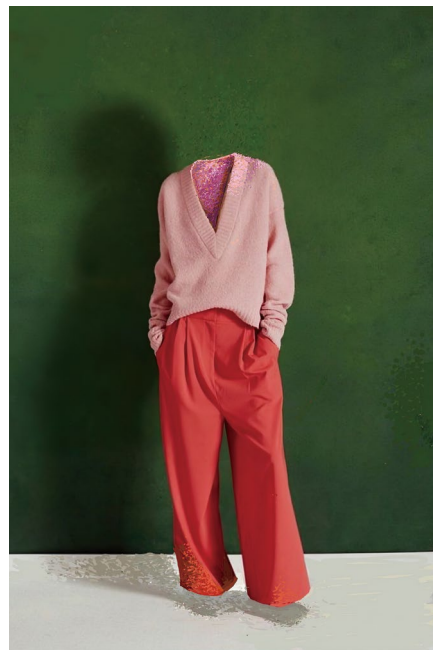
Dibujo digital a pluma hecho con el Smartphone 2019~2021
스마트폰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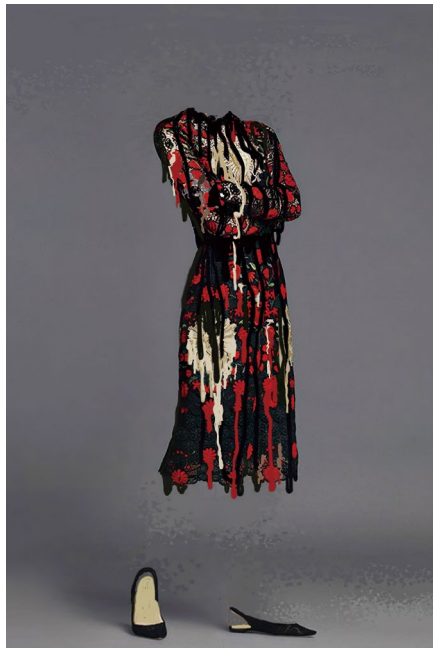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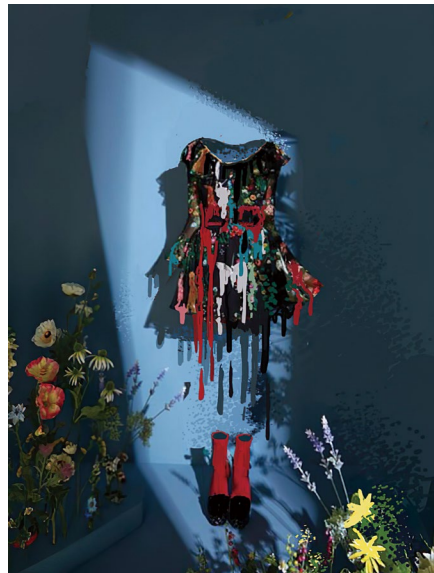
Dibujo digital a pluma hecho con el Smartphone 2019~2021
스마트폰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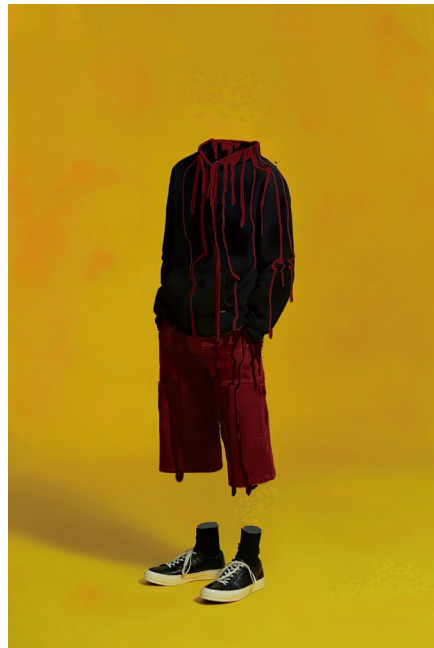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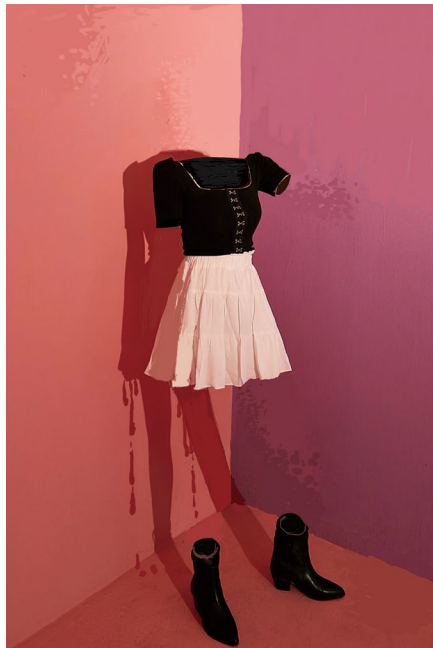
Dibujo digital a pluma hecho con el Smartphone 2019~2021
스마트폰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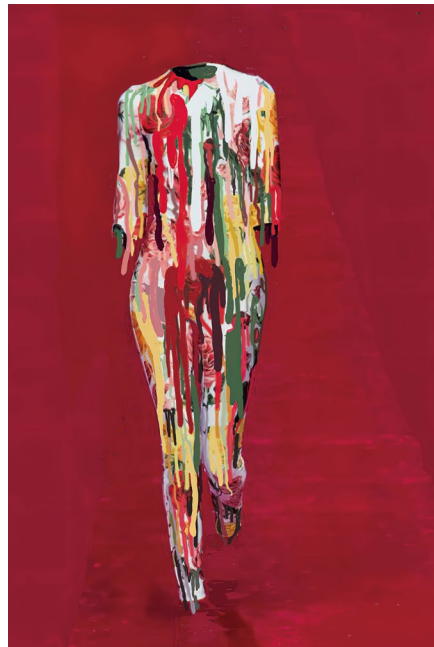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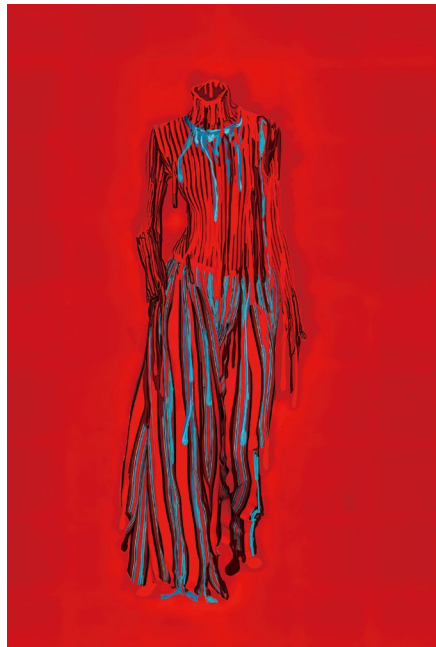
Dibujo digital a pluma hecho con el Smartphone 2019~2021
스마트폰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2019~2021



Dibujo digital a pluma hecho con el Smartphone 2019~2021
스마트폰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2019~2021



Dibujo digital a pluma hecho con el Smartphone 2019~2021
스마트폰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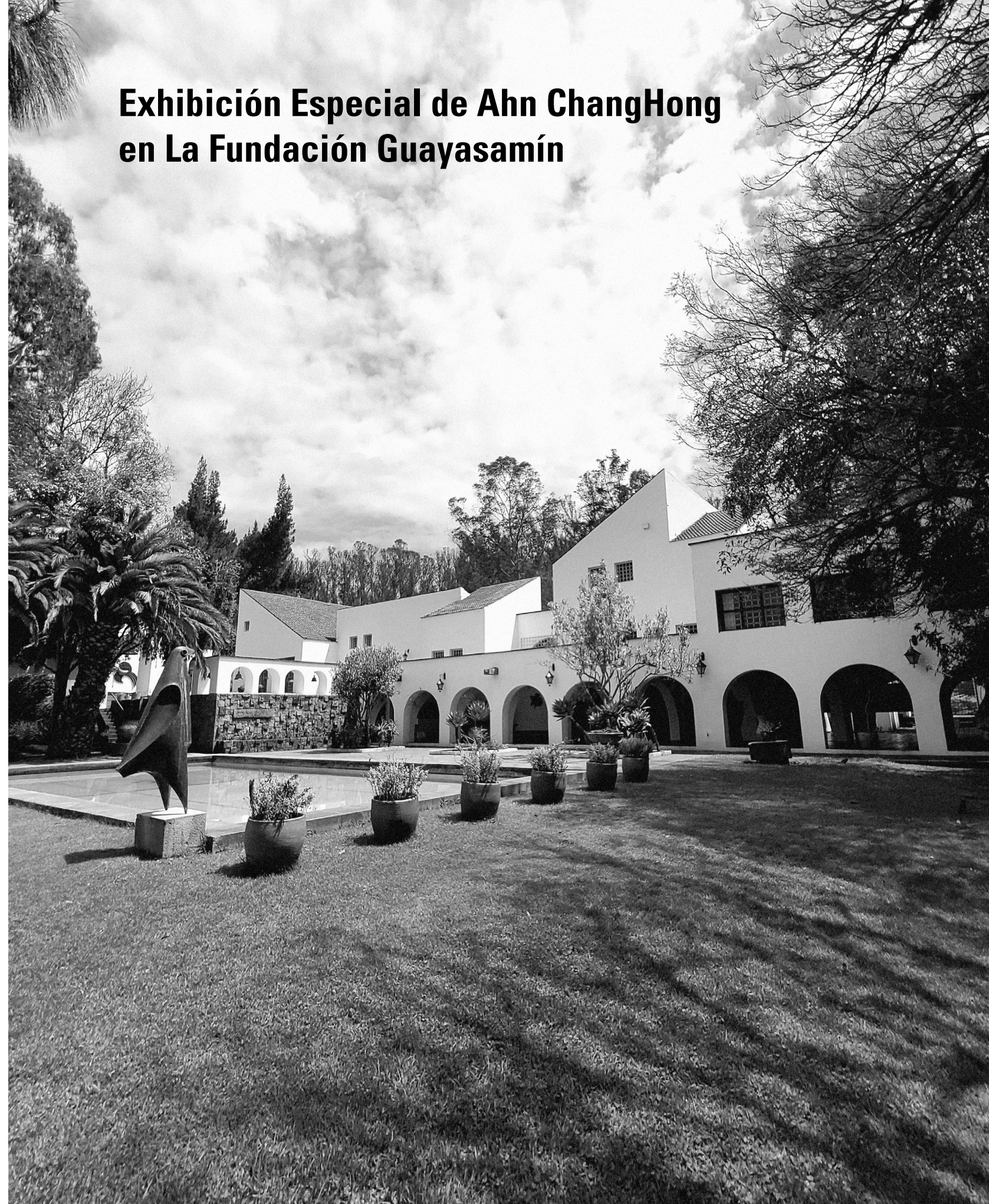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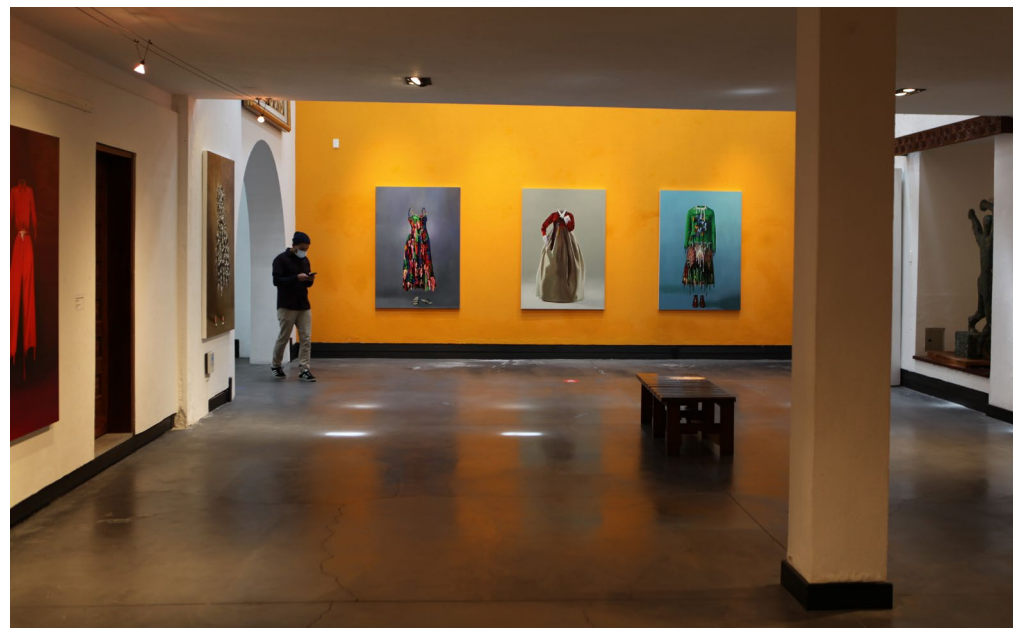
Dibujo digital a pluma hecho con el Smartphone 2019~2021
스마트폰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2019~2021



Dibujo digital a pluma hecho con el Smartphone 2019~2021
스마트폰으로 그린 디지털펜화 2019~2021

Exhibición Especial de Ahn ChangHong en La Fundación Guayasamí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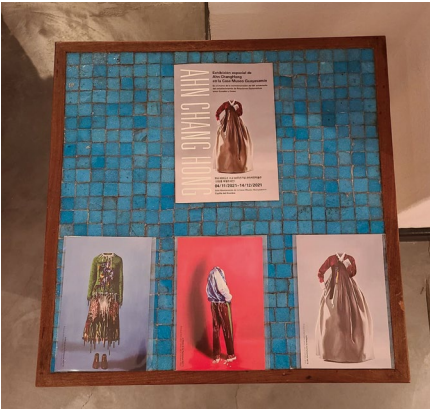


Panorama de exhibición de la *Moda de los Fantasma* en Sala Monteverde de la Casa Museo Guayasamin
과야사민미술관, 유령패션 전시전경



Panorama de exhibición de la *Ceguera* en la Capilla del Hombre
인류의 예배당, 눈 먼 자들 전시전경





BIOGRAFÍA DE LA ARTISTA

작가약력

Ahn ChangHong	
1953	Nació en Miryang, Busan, República de Corea
Exposiciones Individuales	
2021	〈oledad al asecho〉, Centro de Arte Hori, Seúl, Corea
2019	〈Ahn ChangHong: Triste evaporación〉, Museo de arte Gyeongnam, Changwon, Corea 〈Corazón del pintor〉, Galería Arario, Seúl, Corea
2017	〈Ceguera〉, Galería Johyun, Busan, Corea
2015	〈Chang-Hong AHN 1972-2015: Pájaros con alas rotas〉, Galeía Arario, Cheonan, Corea
2014	〈En el jardín〉, Galería Page, Seúl, Corea 〈Recuerdos〉, Centro cultural Bongsan, Daegu, Corea
2013	〈Exposición de la obra de Chang-Hong Ahn– Exposición conmemorativa del premio Lee Jung-Seop〉, Galería Chosun, Seúl, Corea 〈Descubrimiento/Micro:scope〉, Gelería Loop, Seúl, Corea
2012	〈Arirang〉, Galería Page, Séul, Corea 〈Desde Kuri hasta Gobi〉, Galería Lux, Seúl, Corea
2011	〈Viaje a India〉, Galería Konghan, Busan, Corea 〈Una verdad incómoda〉, Galería Gana, Seúl, Corea
2010	〈Exposición conmemorativa del premio de pintura LEE In-Sung〉, Centro Cultural de Daegu, Daegu, Corea
2013	〈Televisión〉, Gelería Hyundai, Seúl, Corea
2009	〈Retrato de época〉, Museo de Arte Busan, Busan, Corea 〈Espejo blanco y negro〉, Museo de Arte Savina, Seúl, Corea
2006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Kongkan, Busan, Corea 〈Cara〉, Museo de Arte Savina, Seúl, Corea
2004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Kongkan, Busan, Corea
2003	〈Ahn ChangHong: viaje a India〉, Galería Kongkan, Busan, Corea 〈El primer premio de Buil Art〉, Galería de Arte Corea, Busan, Corea
2002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Museo de Arte Savina, Seúl, Corea
2001	〈La tormenta de arena–Camino al desierto de Gobi〉, Galería Yeemock, Seúl, Corea
2000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Namsan, Busan, Corea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Grimshi, Suwon, Corea
1999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Rho, Museo Savina, Seúl, Corea

1998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Kongkan, Busan, Corea
1997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Jeon Gyeong-Suk/Galería N-C, Busan, Corea
1995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Grimshi, Suwon, Corea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Namu, Seúl, Corea
1994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Art Hall, Seúl, Corea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Nouveau, Busan, Corea
1993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Kumho, Seúl, Corea
1991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Samtoh, Seúl, Corea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Mac, Busan, Corea
1989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Museo de Arte Ondara, Jeongju, Corea
1987	〈Historia de aves y hombre〉, Galería Novo, Busan, Corea
1986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Museo de Arte Hang Kang, Seúl, Corea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Sain, Busan, Corea
1984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Museo de Arte Corea, Busan, Corea
1981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Kongkan, Busan, Corea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Centro de Artistas Jóvenes, Seúl, Corea

Exposiciones Grupales

2021	〈2021 Festival de Arte Hansuwon〉, Centro de Arte Gyeongju, Gyeongju, Corea
2019	〈Un día soleado〉, Museo de Arte Daegu, Daegu, Corea
2018	〈Canción en un día nublado: Kyung Koo Kang, Eul Kim, Cahng-Hong Ahn〉, Galería Artbit, Seúl, Corea 〈Colección de MMCA: Grieta II〉, Museo Nacional de Arte Moderno y Contemporáneo, Gwacheon, Corea 〈Entre los abismos〉, Galería de la Fundación Cultural Gyeonggi, Suwon, Corea 〈Tiempos lamentables〉, Museo de Arte Seúl, Seúl, Corea 〈Paisaje velado〉, Museo de Arte Norte de Seúl, Seúl, Corea
2017	〈2017 Corea Mañana: narración del paisaje〉, Museo Sungkok, Seúl, Corea

	〈Retrato de Juventud〉, Museo Nacional de Historia Contemporánea de Corea, Seúl, Corea
	〈2017 Palabra Clave de Arte Coreano–Arte de Plaza: De Antorcha a Vela〉, Museo de Arte Jeju, Jeju, Corea 〈Triángulo〉, Galería Artside, Seúl, Corea 〈Samramansang: De KIM Whanki a Yang Fudong〉, Museo Nacional de Arte Contemporáneo, Seúl, Corea
2016	〈Cara desconocida: Nari Kim, Chang-Hong AHN〉, Galería Lux, Seúl, Corea 〈Arte y Sociedad–país feliz〉, Museo de Arte Norte de Seúl, Seúl, Corea 〈History de taller〉, Museo de Arte Hangaram, Centro de Arte Seúl, Seúl, Corea
2015	〈Espíritu de la época: Chun Tae-II〉, Centro de Arte Ara, Seúl, Corea 〈2015 Collección de la galería Seoshin: Mujer〉, Galería Seoshin, Jeongju, Corea 〈La década de 1980 y el Arte Coreano〉, Museo de Arte Jeonbuk, Jeonbuk, Corea
2014	〈Esa idea, esta expresión〉, Museo de Arte Kim’s Art Field, Busan, Corea
2013	〈Televisión〉, Galería Hyundai, Seúl, Corea 〈¡Hombre! ¡Hombre!: Hak-Chul Shin, Chang-Hong Ahn〉, Museo de Arte Gyeonggi, Ansan, Corea 〈Reconstrucción de la escena #1–Scene vs Scene〉, Museo de Arte Norte de Seúl, Seúl, Corea
2012	〈Mapping the Gray〉, Galería Zandari, Seúl, Corea 〈High Times, Hard Times–objetivar〉, Compañía de Arte Interalia, Seúl, Corea
2011	〈Espejo de la Época: retrato〉, Museo de Arte Buckchon, Seúl, Corea 〈Reinauguración〉, Galería Skape, Seúl, Corea 〈Rapsodia coreana–Montaje de Historia y Recuerdo〉, Leeum, Museo de Arte Samsung, Seúl, Corea
2010	〈Artista y su familia〉, Museo de Arte Daejeon, Daejeon, Corea
2009	〈Espejo de humanos–The Head〉, Museo de Arte Kim’s Art Field, Busan, Corea 〈Exposición de Chang-Hong AHN y Jung-Wook KIM〉, Galería Skape, Seúl, Corea 〈El realismo interpretado por el arte contemporáneo〉, Museo de Arte Gyeongbam, Changwon, Corea 〈Visión disonante〉, Museo de Arte Seúl, Seúl, Corea
2008	〈La primavera se va〉, Museo de Arte Gwangj, Gwangju, Corea

	〈Exposición de la obra de Ahn ChangHong〉, Galería Yeemock, Seúl, Corea
2007	〈Documenta Busan 3–Historia de los días ordinarios〉, Museo de Arte Busan, Busan, Corea 〈100 artistas del Arte contemporáneo de Corea〉, Galería Korea Art, Busan, Corea 〈Cómo interpretar las obras〉, Museo Savina, Seúl, Corea 〈Realismo del arte coreano–Dolor del pueblo〉, Museo municipal de arte de Bandaijima, Museo municipal de arte de Fukuoka, Museo municipal de arte de Muyakonojo, Galería Otani, Museo municipal de arte de Fuchu, Japón
2006	〈100 años de Arte Contemporáneo de Corea〉, Museo Nacional de Arte Contemporáneo, Séul, Corea 〈Cara de nuestra época〉, Galería de Arte Yunseu, Centro Cutral Gimhae, Gimhae, Corea
2005	〈Exposición de Arte Contemporánero de Corea– Conmemoración del foro de Cooperación Económica Asia– Pacífico〉, Museo de Arte Busan, Busan, Corea
2004	〈Bienal de Busan〉, Museo de Arte Busan, Busan, Corea 〈Viaje a Grecia〉, Museo Savina, Seúl, Corea
2003	〈1a bienal internacional de arte de beijing〉, Beijing, China 〈Presentación de pintura híbrida〉, Museo Youngeun, Kyeonggido, Corea 〈Cuento de alcohol de artista〉, Museo Savina, Seúl, Corea 〈Drama psicópata〉, Museo de Arte Sungkok, Seúl, Corea
2002	〈Florecimiento de Corea〉, Auction Seúl, Seúl, Corea 〈Proyecto de la bienal de Gwangju 3– suspensión de la pena〉, Parque conmemorativo del 15 de agosto, Gwangju, Corea 〈2002 Nuevo Aspecto entre Korea y China〉, Centro de Arte Seúl, Seúl, Corea
2001	〈Arte de Corea del Año 2001: restablecimiento de pintura〉, Museo Nacional de Arte Contemporáneo, Gwacheon, Corea 〈Familia〉, Museo de Arte Seúl, Seúl, Corea 〈El realismo del año 1980 y esa época〉, Centro de Arte de Gana, Seúl, Corea
2000	〈Bienal de Gwangju–humanos y sexo〉, Museo de Arte Gwangju, Gwangju, Corea
1998	〈Fuera y dentro de la ventana〉, Museo de Arte Gwangju, Gwanju, Corea 〈Redescubrimiento de arte de Busan〉, Museo de Arte Busan, Busan, Corea

1997	〈Arte contemporáneo del año 1997〉, Museo Nacional de Arte Contemporáneo 〈Galería de Arte llena de humores〉, Museo de Arte Sungkok, Seúl, Corea 〈Exposición de Biennal Gwangju〉, Museo municipal de Gwangju, Gwangju, Corea
1996	〈Paisajes nocturnos〉, Galería Savina, Seúl, Corea 〈Historia de 50 años sobre la independencia〉, Museo de Arte Hangaram, Seúl, Corea
1995	〈Recordar los 10 años nevados〉, Museo de Arte Hangaram, Seúl, Corea 〈15 años del Arte Minjung〉, Museo Nacional de Arte Contemporáneo 〈Camino al autorrespeto〉, Museo Kumho, Seúl, Corea
1993	〈Flor del Arte contemporáneo de Corea〉, Cento de Arte Min, Seúl, Corea
1992	〈Aspecto de arte de la época de 1990〉, Instituto de Arte Woori, Seúl, Corea 〈La vida actual y el arte moderno–inconsciencia y ambición〉, Museo de Arte Kumho, Seúl, Corea 〈La era de la tensión y la confrontación–exposición conmemorativa de reinauguración del Museo de Are Hanwon〉, Museo de Are Hanwon, Seúl, Corea
1987	〈Sentido existente〉, Galería Sign, Busan, Corea
1986	〈La realidad y las palabras〉, Centro de Arte Min, Seúl, Corea
1985	〈El cuarto aniversario de inauguración de la Galaería de Arte Seúl〉, Galaería de Arte Seúl, Seúl, Corea
1984	〈La segunda exposición: Espíritu de la Era〉, Busan, Masan, Seúl, Corea 〈La realidad y las palabras〉, Centro de Arte Min, Seúl, Corea 〈Exposición de 83 pintores〉, Museo de Arte Seúl, Seúl, Corea
1983	〈La realidad y las palabras〉, Galería de Arte Kwanhoon, Seúl, Corea 〈La primera exposición: Espíritu de la Era〉, Galería The 3rd, Seúl, Corea
1982	〈11 seres humanos〉, Galería de Arte Kwanhoon, Seúl, Corea 〈Arte contemporáneo de la época de 1980〉, Centro de Arte Arko, Seúl, Corea 〈Situación y conciencia〉, Galería Hyundai, Busan, Corea
1981	〈Bienal de Busan para los jóvenes〉, Galería Kongkan, Busan, Corea
1980	〈Arte contemporáneo de 21 artistas〉, Galería Kukje, Busan, Corea

1979	〈Exposición de los artistas jóvenes de Corea〉, Centro de Artistas Jóvenes, Seúl Chuncheon, Daegu, Jeju, Corea
1978	〈Exposición conmemorativa de inauguración de la galería Kukje〉, Galería Kukje, Busan, Corea
1977	〈1a-2a turbulencia〉, Busan, Corea
1976	〈Exposición de Chang-Hong AHN y Jung-Bok SOO〉, Galería Hyundai, Busan, Corea

Premio

2013	El 25° Sub Premio LEE Joong-sub, Seúl, Corea
2009	El 10° Premio de Arte LEE In-sung, Daegu, Corea
2001	El 1er Gran Premio Buil Art, Busanilbo, Busan, Corea
2000	El 10° Premio Cultural Bongseng, Fundación Cultural de Bongseng, Busan, Corea
1989	El Premio especial del jurado, Festival Internacional de Pintura de Cagnes, Cagnes-sur-Mer, Francia

Collecciones Públicas

Museo Nacional de Arte Contemporáneo
Museo de Arte Seúl
Museo de Arte Busan
Museo de Arte Gyeongnam
Museo de Arte Savina
Museo de Arte 93
Museo de Arte Kumho
Museo de Arte Gyeonggi
Museo de Arte Daegu, etc.

안창홍	
1953	대한민국 경남 밀양 출생
주요 개인전	
2021	〈안창홍의 디지털펜화 유령패션(Haunting Loneliness)〉, 호리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9	〈안창홍: 이름도 없는〉,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화가의 심장〉,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한국
2017	〈눈 먼 자들〉, 조현화랑, 부산, 한국
2015	〈나르지 못하는 새, 안창홍 1972-2015〉,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한국
2014	〈At the garden〉, 페이지 갤러리, 서울, 한국 〈‘남과 북’ 지역공작소〉, 봉산문화회관, 대구, 한국
2013	〈제25회 이종섭 미술상 수상 기념 안창홍 작품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한국 〈발견/Micro:scope〉,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2012	〈아리랑〉, 페이지 갤러리, 서울, 한국 〈쿠리에서 고비까지〉, 갤러리 룩스, 서울, 한국
2011	〈인도 여행스케치〉, 공간화랑, 부산, 한국 〈불편한 진실〉, 가나화랑, 서울, 한국
2010	〈제1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초대전〉, 대구문화예술센터 달구벌 홀, 대구, 한국
2013	〈‘텔레-비’전〉,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2009	〈시대의 초상〉,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흑백거울〉,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2006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 〈얼굴〉,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2004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
2003	〈안창홍의 인도 여행기〉, 공간화랑, 부산, 한국 〈제1회 부일 미술대상 수상 기념전〉, 코리아 아트 갤러리, 부산, 한국
2002	〈안창홍 작품전〉,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2001	〈모래바람-고비사막 가는 길〉, 이목화랑, 서울, 한국
2000	〈안창홍 전〉, 남산화랑, 부산, 한국 〈안창홍 작품전〉, 갤러리 그림시화랑, 수원, 한국
1999	〈안창홍 작품전〉, 노화랑; 사비나 화랑, 서울, 한국
1998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
1997	〈안창홍 작품전〉, 전경숙 갤러리/N-C 갤러리, 부산, 한국
1995	〈안창홍 작품전〉, 그림시화랑, 수원, 한국 〈안창홍 작품전〉, 나무화랑, 서울, 한국 〈안창홍 작품전〉, 이목화랑, 서울, 한국
1994	〈안창홍 작품전〉, 갤러리아아트홀, 서울, 한국 〈안창홍 작품전〉, 갤러리 누보, 부산, 한국
1993	〈안창홍 작품전〉,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1991

	〈안창홍 작품전〉, 샘터화랑, 서울, 한국
	〈안창홍 작품전〉, 맥화랑, 부산, 한국
1989	〈안창홍 작품전〉, 온다라 미술관 초대, 전주, 한국
1987	〈새와 사람이야기〉, 갤러리 누보, 부산, 한국
1986	〈안창홍 작품전〉, 한강미술관, 서울, 한국 〈안창홍 작품전〉, 사인화랑, 부산, 한국
1984	〈안창홍 작품전〉, 고려미술관, 부산, 한국
1981	〈안창홍 작품전〉, 공간화랑, 부산, 한국 〈안창홍 작품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2021	〈한수원아트페스티벌2021 레지던시 페스타〉, 경주예술의전당, 경주, 한국
2019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2018	〈흐린 날의 노래: 강경구, 김을, 안창홍〉, 아트비트갤러리, 서울, 한국 〈균열 II: 세상을 향한 눈, 영원을 향한 시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한국 〈틈 사이에 서서〉, 경기문화재단 로비갤러리, 수원, 한국 〈시대유감 時代遺憾〉,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두 번째 풍경〉,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7	〈코리아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청년의 초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한국 〈키워드 한국미술 2017-광장예술: 햇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트라이앵글〉,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한국 〈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동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
2016	〈낮선 얼굴: 강경구, 김나리, 안창홍〉, 갤러리 룩스, 서울, 한국 〈사회 속 미술-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아틀리에STORY〉,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2015	〈시대정신 전태일〉, 아라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5 서신갤러리 新소장품전: 여자 사람〉 서신갤러리, 전주, 한국 〈1980년대와 한국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한국
2014	〈저런 생각, 이런 표현〉, 김스 아트필드 미술관, 부산, 한국
2013	〈‘텔레-비’전〉,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사람아! 사람아!-신학철, 안창홍 2인 전〉, 경기도립미술관, 안산, 한국 〈장면의 재구성 #1-Scene vs Scene〉,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2	〈Mapping the Gray〉, 갤러리 잔다리, 서울, 한국 〈High Times, Hard Times-객관화하기〉, 인터알리아, 서울, 한국

2011	〈시대의 거울, 초상展〉, 북촌미술관, 서울, 한국 〈재개관전〉,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한국 〈코리아 랩소디-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한국
2010	〈예술가와 가족〉,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2009	〈인간의 거울-The Head〉, 김스 아트필드 미술관, 부산, 한국 〈안창홍-김정옥 전〉,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한국 〈현대미술로 해석된 리얼리즘〉,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괴물시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08	〈봄날은 간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2007	〈도큐멘타 부산3-일상의 역사〉,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한국 현대미술 100인〉, 코리아아트 갤러리, 부산, 한국 〈그림 보는 법〉,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미술의 리얼리즘-민중의 고통〉, 반다지아, 후쿠오카, 미야코조노 시립미술관, 오타니 기념미술관, 후추 미술관, 일본
2006	〈한국 현대미술 10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우리시대의 얼굴〉,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한국
2005	〈한국 현대미술 APEC 기념 특별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2004	〈부산 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그리스 기행〉,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2003	〈제1회 북경 비엔날레〉, 북경, 중국 〈그리는 회화-혼성회화의 제시〉, 영은미술관, 경기도, 한국 〈예술가의 술 이야기〉,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사이코 드라마〉,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2002	〈한국발(發)〉, 서울옥션, 서울, 한국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3-집행유예〉, 8·15시민공원, 광주, 한국 〈한·중 2002 새로운 표정〉,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2001	〈한국미술 2001: 현대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가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19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0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인간과 성〉,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1998	〈창-안과 밖〉,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부산미술재조명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1997	〈현대미술 ‘97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미술관에 넘치는 유머〉,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1996	〈밤의 풍경〉, 갤러리 사비나 초대, 서울, 한국 〈해방 50년의 역사〉,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1995	〈회상 10년의 눈, 화랑미술제 특별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민중미술 15년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자존의 길〉,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1993	〈한국현대미술의 꽃〉, 그림마당 민 초대, 서울, 한국

1992	〈90년대 우리미술의 단면〉, 우리미술문화연구소, 서울, 한국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무의식과 욕망〉,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갈등과 대결의 시대, 환원미술관 개관기념전〉, 환원미술관, 서울, 한국
1987	〈현존시각〉, 사인화랑, 부산, 한국
1986	〈현실과 발언전〉, 그림마당 민, 서울, 한국
1985	〈서울미술관 개관 4주년 기념전〉,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1984	〈제2회 시대정신〉, 부산, 마산, 서울, 한국 〈현실과 발언전〉, 그림마당 민, 서울, 한국 〈83 문제작가전〉,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1983	〈현실과 발언 동인전〉, 관훈미술관, 서울, 한국 〈제1회 시대정신〉, 제3미술관, 서울, 한국
1982	〈인간 11인〉, 관훈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현대미술 80년대 조망〉, 미술회관, 서울, 한국 〈상황과 인식〉, 현대화랑, 부산, 한국
1981	〈부산청년비엔날레〉, 공간화랑, 부산, 한국
1980	〈현대미술 21인의 초대전〉, 국제화랑, 부산, 한국
1979	〈한국미술 청년작가회전〉, 서울, 춘천, 대구, 제주, 한국
1978	〈국제화랑개관기념전〉, 국제화랑, 부산, 한국
1977	〈제1-2회 기류전〉, 부산, 한국
1976	〈안창홍-정복수 2인전〉, 현대화랑, 부산, 한국

수상

2013	제25회 이종섭 미술상 수상, 서울, 한국
2009	제10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 대구, 한국
2001	제1회 부일 미술대상 수상, 부산일보사, 부산, 한국
2000	제10회 봉생문화상 전시부문 수상, 봉생 문화재단, 부산, 한국
1989	카뉴국제회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카뉴, 프랑스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사비나미술관
93뮤지엄
금호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Exhibición especial de Ahn ChangHong en la Casa Museo Guayasamín

En el marco de la conmemoración del 60° aniversario

del establecimiento de Relaciones Diplomáticas entre Ecuador y Corea

04/11/2021~14/12/2021

Sala Monteverde de la Casa Museo Guayasamín, Capilla del Hombre

Anfitrión	Ministerio de Cultura, Deportes y Turismo
Organización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Savina
	Asociación de Museo de Arte de Corea
Patrocinio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rea
Cooperación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Ecuador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y Movilidad Humana de la República del Ecuador
	Embajada de la República del Ecuador en Corea
	Fundación Guayasamín
	Casa Museo Guayasamín
Auspicio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Director General de Planificación	Lee MyungOk
Curador Encargado	Kang JaeHyun
	Pablo David Guayasamín Monteverde
	Berenice Guayasamín Monteverde
Administración de la exhibición	Savina Museum Curatorial Team
	Fundación Guayasamín Team
Crítica	Kho ChungHwan
Edición del libro ilustrado	Lee JunHee
Diseño	Bae Jeesun
Foto	Kim DongGeun
	Jung HyoSup
Traducción	Centro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de la Universidad Hankuk
	de Estudios Extranjeros
Transportación	Uni Art
	Global Transport
Publicación	Museo Savina
Editor	Lee MyungOk

La realización de copias y reproducción de esta publicación está prohibida sin permiso del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Savina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기념

과야사민미술관 〈안창홍 특별초대전〉

2021.11.4.~2021.12.14.

과야사민미술관 몬테베르데 홀, 인류의 예배당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비나미술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후원	대한민국 외교부
협력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에콰도르 외교부
	주한에콰도르 대사관
	과야사민재단
	과야사민미술관
협찬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기획 총괄	이명옥
책임 큐레이터	강재현
	파블로 과야사민
	베레니세 과야사민
전시 진행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과야사민재단 학예팀
평론	고충환
도록 감수	이준희
디자인	배지선
사진	김동근
	정효섭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운송	유니아트
	Global Transport

발행처	사비나미술관
발행인	이명옥

본 작품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사비나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S A V I N A
S A V I N A
S A V I N A
M U S E U M
M U S E U M
M U S E U M